朝鮮日報 夕刊 三十日(火)

# 「에」國首席代表로써 皇帝自身이出席

## 廿九日聯盟事務總長에通達

## 聯盟總會大波瀾豫想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는 쥬네브에到着한以來 聯盟에 對하야 에디오피아의儼然한 存在를主張하고 祖國을爲하야 最後의 奮鬪를 繼續하고잇는데 二十九日 聯盟事務總長아브놀氏에 對하야 三十日 午後 開會의 聯盟總會에 에디오피아首席代表로써 出席할 意向인旨를 通達하엿다 總會에서 英佛兩國代表가 共同作戰下에 伊에 問題를 糊塗主義로 臨하려는 狀態에 잇는만큼 하일레·셀라시에一世의 通告는 俄然 一大波瀾이 豫想됨에 니르럿다 (寫眞은 에國皇帝)

三十日 總會에서 議長에게 提出한다는旨를 述하엿다 그內容에對하야는 元來不明하나 伊太利에對한 今後의佛國의 意向을 打診한것이라고 觀測된다 다음을 [illegible]

에國代表 지가스네크니아氏도 델보스外相을訪問하고 「[illegible]」 問題에對하야는 總會에規約改正案을 提出하는데 反對치안는다는 旨를述하고 最後에 奧太利代表 [illegible]氏는 델보스外相과의 會見에잇서 [illegible] 首相의 總會出席[illegible]을 求하엿다 總會를 明日에압두고 各國代表間의 折衝은 [illegible] 더욱 活潑하다 今日의空氣로는 總會에서 制裁案撤回가決議될것은 確實하다고觀測된다 다만 에디오피아 併合承認問題는 아즉 [illegible] 曲折을 免치못하리라고 觀測된다

# 聯盟總會압두고 各國代表의往來頻繁

## 制裁案撤回는確實乎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聯盟常設代表 포브사스니오 바氏는 二十八日午前 佛國代表 델보스外相을 宿舍에 訪問하고 伊太利政府가 今後聯盟會議에臨할 最後의條件을 明示한覺書를

□大統領候補指名의 米共和黨大會와 指名된 랜든氏

# 倫敦海軍會議에 不參加正式回答

## 英國側遺憾意思表示

### 藤井駐英大使館參事官이英國外務省訪問

【倫敦廿九日發同盟】駐英大使館藤井參事官은 廿九日午後零時半 英外務省에 크레기 參事官을訪問하고 日本政府는 一九三六年倫敦海軍會議에 參加不可能하다고決定하엿다는旨의 正式回答을 手交하엿다 크레기參事官은 右通告에 遺憾의意를 表한다음 英國政府가 囊者考慮된艦艇增加噸數 四萬噸保有及 甲級巡洋艦을 乙級巡洋艦으로改裝할것을 日米兩國政府에 通達하야 內諾을 要한데 對하야 日本政府는 行動의 自由를 保留하고 米國 政府는 에스카레러 條項適用主張의 回答을 發하엿다 英國政府는 日米兩國의回答을 더檢討한後 다시 數日中에 正式에 에스카레러 條項適用의 通告를 하기爲하야 準備中이라는旨를 述하고 會見二十分後 藤井參事官은 辭去하엿다

# 에國統治樣式을 委任統治制로自進受諾

## 聯盟과見解달리한것을陳謝

## 伊、協調的인覺書提出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伊太利政府는 聯盟總會開會를 압두고 二十七日 아브놀事務總長에 對하야 正式覺書를 提出하야 總會에對한 伊太利政府의 方針을 闡明하엿다 右覺書는 三十日總會席上에서 新聞局長[illegible]氏로부터發表될 豫定이다 覺書內容은 極히 協調的으로 에디오피아(植民地)의 統治樣式에對하야도事實上 委任統治制度를 自發的으로 受諾할것이라고解釋되는 覺書要旨로傳하는바는左와如하다

에디오피아政府는 多年에 亘하야 그隣接한 伊太利領植民地에對하야 侵略行動을 企圖하엿다 伊太利政府가 斷然膺懲的正行動을이르킨것은 事情이 全然不得已하엿든것이다 이諸般事情에對하야 聯盟各國政府는 伊太利政府와 見解를 달리하엿기때문에 伊太利는 聯盟과의間에 기픈間隙이생긴것은 遺憾이다 그러나 聯盟各國政府가 認識을 是正하면 伊太利政府도 亦是모든方面에亘하야 聯盟과協調하기를 不吝한다 伊太利政府는 占領地域에잇서各大國이 後進國을 植民地로領有할境遇와 全然同一한 行動을取하야 에디오피아領內에善政을 布하는 同時에 同地의 開發狀況에 關하여는隨時聯盟에 報告할것이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植民地에잇서서는 經濟上 門戶開放主義를堅持하고 特히 外國資本의投資를 歡迎할것이나 當分間領域內에는 警察隊를 駐屯식히고 土民軍은 組織지안켓다

# 各國代表間에 私的折衝頻繁

【쥬네브二十九日發同盟】聯盟總會를 明日에 압두고 各國代表間의 私的折衝은 頻繁을極하야 注目되고잇다 特히 今回 總會召集要請國인 알젠틴代表 기나스氏는 칼론호텔에 佛國代表를 訪問하고 무엇인지 密議를 遂하야 注目을끌고잇다 密談內容은 元來不明하나 알젠친政府는 武力侵略의 成果不承認에基하야 總會에서佛國과共同動作을取치안흘가觀測된다 二十八日 英佛代表間의會談에서는 可及的穩健히 伊에問題를處理하기로 議論이 成立되엿다고 傳하는此際 알젠친代表의 動向은 注目의的이되여잇다

# 日滿工業所有權 相互保護條約調印終了

【新京二十九日發同盟】滿洲國工業所有權相互保護에關한 日滿工業所有權相互保護條約은 日滿兩國政府最高部의 諒解을經하야 二十九日午後三時(東京時間午後四時) 新京外交部階上大廣室에서 兩國代表間 正式調印이擧行되엿다 日本側植田大使 大鷹 山本 林出 吉田各書記官 滿洲國側 張外交部大臣 大橋外交部次長 筒井通商司長 神吉總務次長 大師法制處長 高橋特許局長 等出席 植田大使는 式場大廳에 中央에 張大臣과 對面하야 着席 爲先日本側 山本大使館書記官 滿洲國外交部 上田交涉課長으로부터 各其條約正本을 朗讀 兩國代表는 署名調印을 終了한後 午後三時 條約正本及附屬議定書에 記名調印을 完了하고 一同은 祝杯를들어 同條約調印終了를 祝福하엿다

## 日滿協定全文

【東京電話同盟】日滿工業所有權相互保護에 關한協定은 二十九日午後三時(滿洲時間) 新京에서 植田駐滿大使와 張外交部大臣과의間에서 正式調印을 完了하엿다 右公文을 接受한日本外務省은同日午後四時右協定全文을 左와如히公表하엿다

日本國 及 滿洲國 間 工業所有權相互保護에 關한協定

大日本帝國政府 及 滿洲帝國政府는 工業所有權의 相互保護를 確保하기爲하야 左와如히 協定하엿다

第一條 締約國의 一方의 臣民은 法定手續을 履行할時는 他方의 領域內에서 發明 特許 實用新案 意匠及 商標에對하야 內國의 臣民과同一한 保護를受함

第二條 締約國의 一方에서 發明 特許의 出願又는 實用新案 意匠又는 商標의 登錄出願을 合式으로한者 又는 그承繼人은 他方에서 出願을하는데잇서서 優先權을 享有함 前項의 優先期間은 發明 特許 實用新案及 意匠에잇서서는 十二月 商標에잇서서는六月로함

第三條 締約國의 一方은 他方에 잇서 發明、特許、實用新案及意匠에關하야 手數料、特許料 又는登錄料를 徵收하지안이함

第四條 本協定은 滿洲帝國駐箚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와 滿洲帝國外交部大臣과의 間에 協議로서 定할日字부터 이를實施함

第五條 本協定의 正文은 日本文及 漢文으로하되 日本文本文과 漢文本文과의間에 解釋을달리할時는 日本文本文에依하야 此를 決定함

右證據로 下名은 各本國政府로부터 正當한委任을 受하고 本協定에 署名調印함

昭和十一年六月二十九日即康德三年六月二十九日新京에서 本書二通을作成함

大日本帝國特命全權大使 植田謙吉

滿洲帝國外交部大臣 張燕卿

# 社說

## 「로로츠키」

[illegible]

# 에스카레러條項

## 英國側에서援用結果

## 日米도同一利益均霑

【倫敦廿九日發同盟】英國政府가 所謂 에스카레라 條項援用을企圖한結果 華府海軍會議以來 前後十餘年 大海軍國間의 [illegible] 華府倫敦兩海軍條約의 [illegible] 압두고 그束縛을 脫하게되엿다 英國政府는 驅逐艦및 乙級巡洋艦艦種方에 對하야 에스카레라 條項을 援用하든가 乃至援用範圍를 驅逐艦에 限定할가 아즉判明되지안흐나 英國政府가 에스카레러 條項을 援用한結果 日米兩國政府도 驅逐艦에 對하야 同一利益을 均霑케될것이다 但日本政府는 新倫敦條約參加를 拒絶하엿다는 旨를 通達한結果 主力艦備砲口徑은 米國政府의 主張에基하야 直時十六吋으로 復歸되고 新海軍條約의 가장重要한 制限條項도 自然消滅에 도라갈것으로보인다

# 宋哲元軍 又復機關銃亂射

【北平二十九日發同盟】豐台事件調査次로 後藤大佐는 冀東外交委員林耕宇氏를 同伴하고 午後一時豐台에赴하엿든바 一行이 同驛에到着하매 驛內의 宋哲元軍은 機關銃을亂射하엿다 同行의 林氏도이를 目擊하고 宋哲元軍의 兇暴性을 現認하엿다 그리고 日本人殺害者의身體는 交涉結果 引受하엿다

# 中野正剛氏等 首相에重要進言

## 行政機構改革問題로

【東京電話同盟】東方會의 中野正剛 杉浦武雄 田中養達 木村武雄의四代議士는 三十日午前九時 首相官邸에 廣田首相을 訪問하고

一、政府는 庶政을 一新하고 國策完遂의 基本條件의 하나로 速히 文官任用令及 官吏身分保障令을 撤廢할것

二、軍部 遞信 鐵道 農林等各省의 退職高官을 特殊會社及民間會社에 强制採用케할方法을 廢止할것

이라는點에對하야 詳細理由를附하야 進言하고 그實行을 要望하엿다 이에對하야 首相은 第一의 要望에는 同感이나 兩法令을 撤廢함은 現存官吏의 不安을 招來하게됨으로 實現은 困難하다 第二의要望에는 同感이라는 答을 하엿슴으로 中野氏는더욱 首相의 庶政一新對策外交問題에對하야 意見을質問하고 杉浦氏는司法官의 待遇改善에 關하야進言하고 同十時辭去하엿다

【東京電話同盟】行政機構改革은 廣田內閣에 賦課된 重大使命의 하나로 政府가 如何한 時期에 如何한範圍로 實行할는지 注目되여잇는데 廣田首相은 三十日 午前 東方會의 中野正剛氏等과의 會見에 잇서 政府는 爲先各方面의 意向을 徵하고잇스나 行政機構의 問題는 政府의 重要國策을 決定한後에 漸次 改革하여 갈터이라고 言明하엿다 前記言明에 依하야 行政機構改革은 重要政策을 決定한後 其政策을 運用함에 當하야 이에對應한 行政機構改革이 問題될터로 行政機構그것을 最初부터單一問題로 取扱치안코 政策에伴하는 附隨的의것이라고 본다고言明한것은 注目할만하다

# 近藤知事의急逝로 課長部長異動豫想

[illegible] 近藤全北知事의 急逝에伴한 後任知事의 詮衡은 二三日內로 決定하야 [illegible] 發令은七月七日의閣議에서 決定된後일것이라한다 그리고 故近藤氏의 後任으로 最有力한것은 [illegible]

# 辭令

[illegible]

# 八面鋒

伊太利의 에디오피아征服이것 [illegible]

# 日本將校를監禁한 豐臺事件의眞相

## 北平武官室에서公表

【北平二十九日發同盟】二十六日 豐臺에서의 宋軍의 侮日事件에 關하야 北平 武官室은 本日午後十時 그眞相을 如左히 公表하엿다

二十六日 午前九時四十分 乘馬六頭를 繫連한 廿九軍三十七師 百九旅의 馬夫二名이 豐臺西側의 日本兵營에 侵入하엿스므로 日本軍所屬의 鈴木屋員은 兵營工事를 監督하고잇는 勝又軍作과 協力하야 此를制止하려하엿스나 不肯하고 도리혀 兩名에게 危害를加하려하므로 勝又는 附近作業中의 日本兵에게 救援을 求하엿든바 馬夫는 이에 놀내여 乘馬六頭를 放棄하고 營外에 逃亡하엿다 이에 鈴木은 右情報를 日本軍憲兵에急報코저 豐台로 向하든바 日本兵營에서 逃走한 前記馬夫는 中國兵營에서나온 二十數名의 兵과함께 鈴木을 包圍하야 이에 暴行을加하고 腕足數個所에 打撲傷을 주엇다 右報告를 接受한 北平駐屯日本軍步兵第一聯隊步兵大尉 河野又四郎은 實情調査키爲하야 午後一時너머 豐台駐屯의 二十九軍三十七師百九旅二百十七團 第三營本部에 至하야 營長에게會見을 要求하엿든바 營兵數名은「營長不在」라稱하야 此를 밧지안흘뿐아니라 靑龍刀를빼여 威嚇하고 衛門에서 二、三間쯤 쫏기여 衛門에나왓슴으로 鈴木을毆打한 不祥事의 實情調査를 要求하엿든바 營長은 河野大尉만을 兵營本部에 드리고 他의 將校의入門을 阻止하야 態度가 極히 誠意를 缺한것임으로 河野는 「이實情을 日本軍、領事에 報告한後에 處置하겟다」고 하고 辭去하려하엿다 그런데 衛門에 잇는 營兵數名은 銃劍으로 脅迫하고 더욱 同營東側에 잇는 二十九軍 第三十七師 第百九旅 二百十七團 第三營으로부터 武裝한 將兵二十數名이 包圍하고 더욱 自動小銃을 裝塡하고 自動車運轉手를 脅迫하며 自動車運行을 阻止하엿다 다음에 現場에 달려간 營長도 또한 河野의 陳述을 [illegible] 營內의 一室에 同大尉를 監禁하엿다 [illegible] 右는 明白히 公務를 妨害하고 此를 監禁한것으로 日本軍에對한 重大侮辱行爲이다

# 에스카레러條項 英政府援用決定

【倫敦二十九日發同盟】英國政府는 手續準備에着手하엿다 右通牒에 잇서서 英國政府는 甲級巡洋艦保有及 歐洲各海軍國의 潛水艦勢力增大를 指摘하고 [illegible] 一九三〇年 倫敦海軍條約第二十一條에 依하야 에스카레러條項을 援用하기로 決定하고 이미 [illegible] 政府에通告 [illegible]


近日傑作 W S
映畫劇 お夏清十郎 林長二郎 田中絹代
流行歌 泣かせてね 新橋みどり
新小唄 納涼をどり 橋本一郎 喜代丸
流行歌 私がお嫁に行つたなら 丸山和歌子
ヌイヘイレコード

七月特選新譜
流行歌 盧碧花 울나시면
사랑의 謠歌 崔姜 南石 鏞蕪
南俗 道謠 뚱개타령 군밤타령 李素香 劉弄珠 伽倻琴·대젓
流行歌 戀慕 崔南鏞 盧碧花 울으는사람
新民謠 멋타령 朴由紅 님실은배
短歌 片時春 李素香 伽倻琴倂唱
春香傳 哀曲(上下) 劉弄珠
태평레코-드 Taihei Record

# 間島共産黨死刑囚 十五名再審要求

## 三名도不日再審要求形勢

간도공산당사건 사형수 십팔명중 주현갑(周現甲)등십오명이 경성복심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엿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십구일에는 김룡준(金龍俊) 리종립(李鍾立)세명이 상신하엿는데 리동선(李東鮮) 로창호(盧昌浩)두명이 각각 재심을 청구하야 모다 열여덜명중 열다섯명이 재심을 청구하엿다 남어지세명도 곳재심을 청구할것으로 보고잇다

### 多情男의投某願

사랑하는 안해가 까닭업시 집을나가서 도라오지안는다고 경찰에 수색원=시흥군 신동면 반포리(始興郡新東面盤浦里)에사는 서영복(徐永福)은 자긔의 안해 박간란(朴干蘭)(二○)을 차저달라고 시내 룡산서(龍山署)에 수색원을 제출하엿는데 그에 의하면 지난 소화팔년경에 박간란과 정식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비록 살림은 구차할망정 내외간 금슬에 아모 탈이 업시 살어나려오든중 지난 이십일 오후한시에 아모 까닭도업시 집을 나간채 이날까지 소식을 끈흘뿐아니라 자긔이웃사람들은 각금 리태원(梨泰院)근방길가에서 맛낫다는데도 이내 자최를 숨기고도라오지안흐니 차저서그리움을풀게해달라는것이다

### 無職을悲觀 少年이投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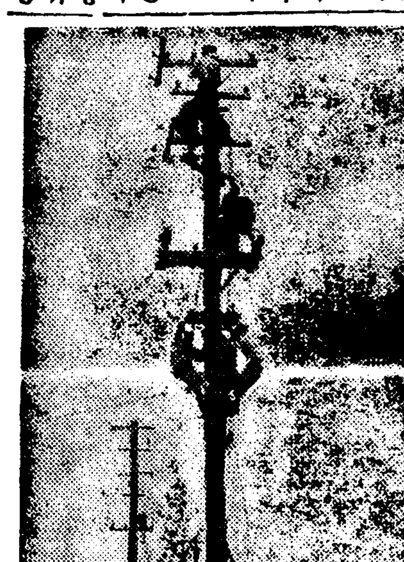
이십구일 오후한시반 한강(漢江)인도교 넷째 "피어ー"에서 어떤 소년이 몸을날려뛰여드러가는것을 때마침 이광경을 목도한 천진전(川眞田)"보ー트"구락부 사공권태산(權太山)(三三)이가 빨리뛰여드러가서 구해내엇는데 이는 종로(鍾路)사정목송운집 한은규(韓銀圭)(一七)로 취직못하는것을 어린마음에 비관하고 그가티 죽으려든것이라한다

### 平北厚昌에送電

평북후창군후창면(厚昌郡厚昌面)에도 전등이 켜여지게 되엿다 후창은 압록강(鴨綠江)상류지방에잇는 궁벽한지방인데 여태까지 전등이업섯든바 이번에 강

### 光化門通高壓線에 工事中電工感電騷動

삼십일오후녀시이십분경 광화문통 [illegible] 경성전기공사조합(京城電氣工事組合)경성지부(京城支部)원 경전(京電)송전선(送電線)을 수리하고잇든 시내본정(本町) 경성사경성출장소(京城出張所)직공 문경수(文慶洙)(二五)는 고압선(高壓線)에 감전되여 즉시 의전병원(醫專病院)에 입원 응급치료중이라는데 생명이 위태하다한다 ─(사진은 소동현장)



기전긔회사(京城電氣會社)가 후 착하야 시실키로 [illegible] 를 진행하야 [illegible] 동을 켜거될터인데 [illegible] 압구년개이며 명년팔월까지에는 여러가지 공사가 완성되여 긔스를 켜거될터이라한다

# 場所와名義를變更 地方商人을欺瞞

## 全朝鮮에被害額이十餘萬圓 正信興業社罪狀續出

긔보=시내종로사정목 백팔십팔번지 선광상사회사 경성지점(鮮光商事會社京城支店) "쎌딩"의 방하나를 빌려가지고 발행하는 상보에는 당당히 "쎌딩"전경을 넣어코 련쇄점모집을 표방하야 삼남각지에서 단한달동안에 삼만여원이란 다액의 보증금사취를 감행한 합자상회 정신흥업사(合資商會正信興業社)의 대사긔사건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체포된 부사장겸 번명계류다긔(柳澤)와 회계겸하조발송계송남긔(南基)(三)는 [illegible] 그들은 작년팔월경부터 가튼수법으로 단과 숨책으로 시내각처를 전전하며 명의를 밧구어가며 보증금사취를 감행한것으로 그액은 십여만원에달할듯하나 자세한 내용은 사장인 장정순(張正淳)(三)이가 미체포중임으로 분명치안타 그리고 이들의 독수에걸린 최후의희생자 한명이 소관동대문서에 나타낫스니 그는 경북김천읍성내정(金泉邑城內町)백팔십칠번지에서 잡화상을 하는 신정화(申鼎和)(三七)로 지난십이일 전긔흥업사의 외교원 윤영철(尹泳哲)이란자가와서 감언이설로 병종련쇄점(丙種連鎖店)(계약(保證金百圓)을하고게약금으로 이십원을지른후 며칠안되여 보증금잔액의 독촉이심함으로 드듸여이십칠일 이십팔원을 송금한일인 이십팔일 지면에나타난놀나운 사실을보고 급히상경하야 흔흔히미덧든 전긔회사를차저가니 문은잠기고 사람은간곳업는데 꼼짝업시 내다는 것이라고한다

# 全部에體刑

## 最高七年最下二年 國際密偵團事件判決

【淸津支局特電】 소위국제『스파이』단사건의관계자 황운천(黃雲天)등 네명에 대하야 삼십일오전아홉시에 청진(淸津)지방법원에서 징역삼년내지 칠년의 판결을 언도하엿다 황운천 장등현(張登賢) 최동철(崔東喆) 채항묵(蔡恒默)등네명은 징역칠년 리춘선(李春善)은 징역오년 김봉길(金奉吉)은 징역삼년으로되엿다 이가운데 장등현은 미결구류 일백오십일의 통산을 바덧다

### 金浦에一胎三牛

【金浦】 금포군 검단면 불로리(黔丹面不老里)윤리섭(尹理燮)의 [illegible] 서 구경하려오는 사람이 매일 답지한다고한다

# 兩青年檢擧는 阿片密輸로判明

긔보=지난십구일 서대문서에서 개성(開城)에출장하야 고려정(高麗町)에서 체포하여온 문모(文某)와 우모(禹某)량청년은 그동안좌등(佐藤)부장이 주로 엄중한 취조를 계속하고잇든바 이지음 그들의 범죄진상이 겨우알려젓는데 전긔두명은 사상계통은 별로업스며 수년전부터 아편밀수입을 하든것이 탄로되엿다 한때전긔우모는 청년이국경방면에 출입하야 중국방면에 출입

# 朝鮮劇場放火犯 廿九日에公判에廻附

재산가의 아들로 상당한교육을 바든 청년이 계모와 화해에견듸지못하야 세상을 비관하는남어지 활동사진구경을 갓다가 영사막에 나타나는 영화의 충동을바더 차라리 감옥에나가는것이 낫겟다고 그극장에다 불을노앗다하야 일시일반의 주의를 잇끌고잇든 조선극장에 방화하엿다는 전주부청수정(全州府淸水町) 림종수(林鍾秀)(二○) 지난십오일 종로경찰서로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국으로 넘어온이래 민(閔)검사의 취조를 바더오든중 드듸여 취조가 끗나 이십구일 방화(放火)죄명으로 그 공판에 회부되엿다

# 蕩子愛慾狂態劇

## 歡樂도南柯一夢! 爾今엔留置場生活 놀러낸"兵丁一黨"도一網打盡

### 登場紅業 二十餘名

시내 종로서 사법계에서는 이십구일 시내락원정(樂園町)이 실지 홍병삼(洪秉三)(二三) 렴구정(廉龜町) [illegible] 리희춘(李熙春)(三)과 연지동 일백사십번지 오재근(吳在根)등을 붓잡어다가 방금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은 인장위조사긔(印章僞造詐欺)혐의로 엄중취조중인데 사건내용인즉 전긔 오재근이는 수십만원 재산가의 아들로서 원래방탕한 호색한인바 그리하여 그 아버지의 도장을 위조하야 식산은행 룡산지점(殖銀龍山支店)에서 전후세차례에 칠천오백원의 예금을 편취하게 하여가지고 이름난기생 백목단(白牧丹) 김송월(金松月) 리소홍(李素紅) 박금주(朴錦珠) 강매홍(姜梅紅)과 남의첩 김금도(金桃桃)등 이십여명의녀자로부터 향아의광태를 나타내엇든것으로 사법계에서는 참고심문으로 불러온 수만흔기생들로하야 때아닌꽃바다를 이루고잇다

# 緬禮하러왓다 現場에서急死

## 白骨보자 氣昏卒倒 梨泰院墓地의變事

무덤을 면례(緬禮)하려갓다가 무덤에서 죽은 로인=시내금정(錦町)이백이십사번지 려약서(呂若瑞)라는 로인은 이십구일 오후 한시 시외리태원(梨泰院)공동묘지로 자긔친척의 무덤을 다른데로 파서옴기고저갓다가 너무 슬퍼한 남어지에 그만 심장마비(心臟痲痺)를 이르키여 현장에 졸도하면서 즉사하엿다한다

# 水上界의劃期的盛事 京平對抗戰開催

## 水泳聯盟과水上競技聯盟主催 八月中平壤서擧行

【平壤】 평양수상경기련맹에서는 이십칠일오후아홉시부터 府內[illegible]食堂에서 第四回定期總會를 開催하고 各部報告 任員改選 事業計劃에관한 討議가잇섯는데 改選任員과 今年度事業案은 다음과가트며 年來의宿望이든 京平兩都市의 [illegible] 京城對平壤의 水上對抗戰은 京城水泳聯盟과協議하야 本社平壤支局의 [illegible] 今夏八月中에 平壤에서 第一回戰을 開催하기로되엿는데 不振하든 우리水上競技界에 劃期的新紀元을 지을것으로 벌서부터期待된다

改選任員

▲部長 崔[illegible] ▲副部長 崔[illegible] ▲監督 崔潤海 ▲財務 [illegible] ▲書記 申載[illegible] ▲主務 鄭[illegible] ▲顧問 金[illegible] 韓[illegible]

◇今年度事業

一、京平對抗戰開催

二、關西體育會主催 全鮮[illegible]水上競技大會出場

三、夏期水泳講習會開催

### 金米陸上競技驚異 二百米黑人또新記錄

【[illegible]廿七日發】 [illegible] 廿七日 [illegible] 競技場에서 擧行된바 新人[illegible] 南加大學의 [illegible] 『펠·세프톤』 回[illegible]·크리[illegible] 자코大學 『쩨크·련드』 [illegible]體育俱樂部와 『쪼ー자·파ー로』 [illegible]의 四名은 모다 十四呎三吋을 넘어서 五呎五吋로 [illegible] 엇스나 아깝게도 『폐롤』이 [illegible] 二百米에는 [illegible] 『로ー빈손』이 [illegible] 가 六呎七吋를 [illegible] 千米에는 『쩬마허』 [illegible] 一分五十二秒의 [illegible] 『이ー스톤』이 [illegible] 其外에도 昨年에 日本[illegible] 記錄을깨트린 [illegible] 수·피루톤 二十六日 『리ー』 [illegible] 不[illegible] 하엿다

# 膏血搾取三千圓

## 近澤商店共榮會書記兩名 罪狀綻露、西署에被逮

시내경정정(京町)[illegible] 근택상점(近澤商店)인 조합 공영회(共榮會)서기남상기(南相基)(三)와 장홍엽(張鴻燁)(三)두명은 회원[illegible]에서 [illegible] 직공으로 조직된 구매 [illegible] 보는것 시내 봉래정(蓬萊町)에잇는 철공[illegible] 옷기회로 약이년전부터 동회장 [illegible] 의 어장을의조하야 [illegible] 여 발금서대문서에서 엄중한 취조를 밧고잇는중이라고한다 엿는데 이십팔일 죄상이탈로되여 일정미소(天一精米所)등으로부터 물품대신에 전표와 현금을밧어 그동안 약삼천여원을 사취하엿는데 [illegible] 이것드니만치 상당한 주목을 끌고잇는이 사건은 일단락을 저을모양이라고한다

어린이의선약 小兒 肝氣散 本舖 京城阿峴 普生藥房

# 檢事의控訴업스면 九名은不日間出監

## 鄭忠朝外三名만五年以下體刑

### 朝共全南同盟事件의判決

【光州】 조선공산당전남동맹(朝共全南同盟)사건 정충조(鄭忠朝)(三三)등십삼명에대한 치안유지법(治維法)급 출판법위반(出版法違反)의 공판은 사월이십일부터 광주지방법원(光州地方法院)제일호법정에서 안전(安田)재판장 심홍(沈洪) 전중(田中)량배석판사 이등(伊藤)검사립회하에 륙월십일까지 륙회공판으로 사실심리를마치고 림회검사로부터 최고팔년 최하팔개월의체형구형이 잇슨후 언도는 륙월이십오일에하라든것이 배석판사 전중씨의사고로 지난이십구일 오후세시부터 안전(安田)판사로부터 언도가잇섯는데 검사의 공소만업스면 정충조 리창수 문석 주원석(鄭忠朝、李昌洙、文錫、朱元錫)등 사명을 제외하고는 구명이 전부 출감하게되리라하며 금후검사의 태도가 주목처기된다는데 구형과언도급 통산일수는 다음과갓다

| | 求刑 | 言渡 | 未決通算 |
|---|---|---|---|
| 鄭忠朝(三三) | 六年 | 五年 | 三百日 |
| 李昌洙(三一) | 三年 | 二年半 | 三百日 |
| 呂運鋼(三七) | 三年 | 二年 | 三百日 |
| 金龍煥(四○) | 三年 | 二年 | 三百日 |
| 張平完(三一) | 二年半 | 二年 | 三百日 |
| 朴采永(三一) | 二年 | 二年 | 三百日 |
| 吳宇鴻(四○) | 二年 | 二年 | 三百日 |
| 文錫(三三) | 二年 | 一年半 | 一八三日 |
| 朱元錫(三三) | 一年半 | 一年半 | 一八三日 |
| 金永均(三一) | 三年 | 二年 | 四年執行猶豫 |
| 金仁植(二七) | 一年半 | 一年 | 三年執行猶豫 |
| 金石謙(三二) | 一年 | 一年 | 三年執行猶豫 |
| 李昌熙(二五) | 八個月 | 八個月 | 三年執行猶豫 |

### 競馬場아페嬰兒屍

이십칠일 시내신설정(新設町)에잇는 경성경마장(京城競馬場)에는 낫지두어달되여 보이는계집애의 시체가 잇는것을 부근에서 일하고잇든 경마장인부 석흥(李石興)이가 발견하엿다。 소관동대문서(東大門署)에서는 곳검시를 한결과 이십삼일경에 죽은것으로 외상이라고 한정할것은업고 정신이 쇠약한점으로보아 영양부족의 병자인듯 하나 그임자를 엄탐중이며 아이는헌무명옷을 입혀 다섯해거름 특거기피 불과한자되는 땅우에다놋코 거죽으로 우를덥허두엇든것이다

# 義烈團員韓、金兩名

## 仁川一泊、平壤에押送

【仁川支局電話】 긔보=의렬단(義烈團)의거두로상해(上海)에서 옥관빈(玉觀彬)을 암살한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바티 그곳령경(領警)에게 체포된 평남(平南)중생 한도원(韓道源)(三) 김창근(金昌根)(二)두명은 예정과가티 삼십일오전령시반 인천(仁川)에드려오는 『평안환』(平安丸)으로상륙하엿다 그리하여 하로밤을 인천경찰서에서 지내다음 이날오전열시 렬차로 평양서(平壤署)로 곳압송되엿다 그리고 그들의 압송과동시 상해로부터 압수해온 서류 기타 증거물등 세개의 커다란『트렁크』는 인천경찰서 전옥으로 실어보내엿다。

### 竊盜四犯의少年 元山署에서檢擧

【元山】 계모의모진학대를 버서나서 안주지를 찻다가 절도사범이란 락인(烙印)을맛고 경찰에 부탓친소년이잇다 면첨전 원산서에서는 시내영정(榮町) 박모(朴某)방에 잇는 박래서(朴來瑞)(假名)을 절도혐의자로 인정하고 검거해다 방금취조중이다 그는 개성부북본정사십삼번지(開城府北本町四三) 박치규(朴致圭)(假名)의장남으로 어렷때어머니를 일코 이래계모슬하에서 자라다가 [illegible] 찰에부잡히엿스나 변령관계로방면되여나와잇다 그러나 그는한번 내디든범죄의길을 버서나려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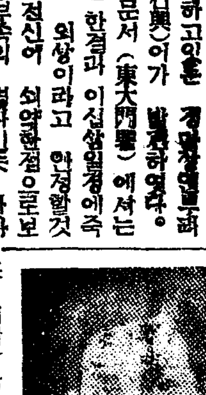
# 平壤大同製材工場 職工五十名罷業

## 賃金引上을要求코

【平壤支局電話】 평양선교리(船橋里) 대동제재공장(大同製材工場)에서 일하고잇는 직공 오십명은 삼십일 동맹파업을하엿다 그들은 하로에 일원이십오전내지 일원이십오전식을 밧고잇섯는데 요지음 여러가지 물건갑시 비싸저서 살아가기 곤란하므로 일좌삼할을 올려달라고 주인에게 요구하엿는바 주인은 칠할박게 올려주지못하겟다하므로 드듸여 서로 타협이 되지못하고 일을하지안키로된것이라한다

# 新醫博·朴容來氏

## 千葉醫大서學位論文通過



또 의학박사한명이 생겻다 이번에된이는 시내 종로일정목에서 광중의원(廣衆醫院)을 경영하고잇는 박용래(朴容來)씨로그는 소화이년에 일본의과대학을 졸업하엿는데 천엽의과대학 서방(緒方)교수의 지도미테서 학위론문을 작성하야 얼마전에 천엽의과대학(千葉醫大) 교수회에 제출하엿든바 이십구일에 그교수회에서 그론문이 통과되엿다한다 론문은『장내세균(腸內細菌)의 길항작용(拮抗作用)에 관한연구』라는것이엿스며 참고론문으로도 두가지를 제출하엿는데 조선간장을 세균학(細菌學)적으로 연구한 희귀한 연구론문도 잇섯다한다 (사진은 박용래씨)

# 天氣予報

概況 高氣壓은 日本本州의 南海上에잇서 七六三미리를보이고잇다 日本內地及滿洲朝鮮의氣壓配置는 大端히不安定하며 곳곳에小低氣壓이잇다 滿洲와北朝鮮은 개이고 南朝鮮은 흐리며 西洋의中部에는 안개가 끼인다 日本內地도흐리며 곳곳에비가오다 明日도氣壓의配置가 不安定이므로 맑은日氣는아니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개엿다흐렷다하며 明日도갓다 京畿道全區도 개엿다흐렷다한다

昨日 最高 二四度二 最低 一八度三

今朝 最低 一七度二

今日 正午 二四度八

# 大田郡是罷業

## 指導人物被逮 海外亡命中의姜昌基

【大田】 제골으로둔사 사년전 대전군시제사공장(大田郡是製絲工場)의 대파업을 지도하든 동맹(東)의 [illegible] 전 외인동맹(外人同盟)이라는 비밀결사의 중심인물이든강창기(姜昌基)는 지금까지 해내해외로 망명하야 [illegible] 히 지하운동을 계속하다가 얼마전에 잠입하야 잇든 [illegible]의 집에 숨어잇든바 맛침내 체포되야 지난이십구일 [illegible] 본경찰부로 호송되야왓다 한다 서 그곳에잇는 남경(南京)으로 [illegible] 에 들어가 [illegible] 아먹든사실을 자백하얏다

# 歡笑의連續線!

## 各官廳에昇給旋風

"쌀뎌리·맨"들에게 돗기만해도 부러운 "승급(昇給)"뉴ー스!!─총독부와 및 그소속각관청의 승급사령은 삼십일 날짜로 일제히 발령이되엿는데 고등관은 전조선을 통해서 삼백스물여덜명이고 판임관으로는 총독부관계만 이백세명이라한다。 된 봉급액은 한개월액이 약구백원이되여 일년간에 인건비로 일만원의 증액을보리라한다 이외에 용인(傭人)으로 승급된것은 이백명이나 되는데 승급액 합계월액 삼백오십원이라한다

### 鐵道局

철도국(鐵道局)의 그것을 보면 판임관이 삼백스물여덜명、고원이 일백사십명 합계 사백여덜명이라 한다 그중수입만키로 제일인 철도국 철도수(鐵道手)가 마흔여덜명、고원이 일천팔백일흔아홉명으로 이것을다시 승급된 액수별로보면 판임관이 삼천구백사십오원、철도수가 이백팔십원에 고원이칠천삼십원이라한다

### 府廳

경성부리원(吏員)의 정긔승급(定期昇給)은 칠월일일부로 발령되엿다 이번승급된 승급을받는사람중에서 여섯명、일급이 [illegible] 할의 승급자는 [illegible] 일정월급에서 일백팔십명 합계 [illegible] 명의 승급이잇섯다

### 女學生專門으로 소매치기한少年

녀학생(女學生)재군에게 드리는 적신호(赤信號)하나=이십구일시내본정서에 고양군중면 일산리(高陽郡中面一山里)에 주소일정치못한 박종식(朴鍾植)(一)이란어린아이가 절도혐의로 잡혀 취조를 밧는중이라는데 그는주로 아츰에학생들의 등교시간을리용하야 전차속에서 그들의 주머니를 훔치는등 약삭빠르게 하여 피해 녀학생들이 [illegible] 데 녀학생들의 제복은 『소매치기』하기에는 아조 편리하다고하는데 아프로 더욱 주의해라고 당국자는말한다

乙好水白粉 朝鮮京城 乙好化粧品株式會社 電話光化門

(見本無料進呈) 電醫養成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高等電醫 醫師同樣開業 全國無試驗開業 南鮮講習院 釜山町賓水三ノ六二

KATOU キカトール

工藤武城 醫學博士 院長 癌科 라듸움科 醫學士 松本泰治 婦人科 李敏信 京城婦人病院 京城北米倉町九四 電本②〇四八二・三八九三番

京城鍾路二丁目 完全修理 時計 普信堂時計舖

旗 カメヤ旗店 京城黄金町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 幕

丸善テント商會 釜山府牧島 電話牧島長〇一八

瓦斯入 電球 朝鮮唯一의大工場에서 産出하는優良鮮産品 林電球製作所 京城府新堂町四〇九 電本②五二六一番 全朝鮮特約店募集

山羊乳 キング山羊牧場 瑞西直輸入系優良山羊 京城東小門外城北町 電話光化門(3)三〇五番 振替口座京城三五〇番

朝報案內 指導 對生活安定年齡二十五歲以上 有經驗者又는官公吏銀行會社退職者 特別優待합니다 七月十日까지履歷書送付又來談事 板谷生命朝鮮支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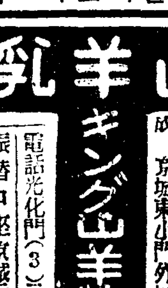
載寧婦人商會 振替京城一〇六八六番 長期檢査 他에比較最有利 信用 特色

恩給 京城府授恩町一六〇 鄭商會

巡査看守(試驗講義錄) 朝鮮警務學會 京城府永樂町二丁目二番地 電本②二三二〇番

朝鮮料理 天壽閣 風景과藥水의 安靜寺後麓 京城下往十里町 電本②四四九二番

김질藥은 胃腸障害를 念慮하시는분께 ネオチリン 定價 五十錢

# 朝光七月號의大盛裝

## 坊坊谷谷에配布되는「朝光」誌의偉力을보라

### 各方面先驅文筆家網羅한大雜誌

## 絢爛한『七月號』內容

### 朝鮮雜誌王의步武

### 新知識·新趣味本位

조광(朝光)은 이제는 그야말로 조선의 잡지왕이 되엿습니다 사백여페지의 큰 잡지가 조선에서는이 『조광』 하나이며 표지(表紙)는 매호이 이번 칠월호(七月號)를보시면 아시겟지만 이 역시 조선서 처음 시험해본 극채색인 이 잡지에 뚜렷하고 아름다운 얼굴이며 화보는 그 절귀, 그 시기를맞추어 생생한 산 사실을 사진으로 꾸민것이나 누구나 한페지도 허술이 넘길수업는 노력이 력력히 보힐것입니다 또는 이 조광의 필자만 하여도 조선에서 각방면의 선구자며 또 문필가 제씨를 총 망라하야 실로 이잡지는 조선 문화 전당의(文化殿堂)의감이 잇스리라고해도 조금도 망녕된 말슴이 아닐것입니다 이 『조광』이 잇슴으로 조선언론계에 큰 도움이 잇슬것으로 자신하며 아프로이조광의 발전이 눈이 부실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칠월호는 특히 려행하는분들의 반여자로 자처하며 정치 시사의 론문(政治時事論文)도 특히 독자제씨에게 큰 지식이 될줄 밋습니다 사백여페-지 잡지에 단三十錢 郵稅는 本社負擔이니 이잡지를 안사보시고 어떠한 잡지를 보신다 하겟습니까

## 여름山川의그밤

## 名士의七絃琴奏鳴曲

### 江山을가도이글을읽고가라

여름철이되면 녯적절에 다니든 산과 그들과 그강이 생각난다 젊어서도 산절로 물절로 나절로 흘부르고 늙어서도 산절로 물절로 나절로를 부른다 더구나 산백이 재빗이 물소리 새소리인 이여름의 산과들이라 저산에 녯날의 아름다운 꿈이 그리워잇슬것이겟고 저 물에 녯노래가 흘러가려니 여긔서 인생에게 시(詩)가 잇고노래가잇고 꿈이잇다

◇

누구는 가튼 산에도 백두산 한나산, 태백산, 금강산하고 누구는 가튼강에도 한강, 락동강 두만강, 대동강한다

그이들의 눈에 비최는것마다 따ㅣ다른정취와 감흥을 가지고 잇고 다ㅣ 그말과 그노래와글이달라

지금朝光노는 이아름다운 노래와가튼 글을 만히 실엇다

여름도 곳갈것이다

그러면 이번가는여름에는 또 어떠한것으로 어생에게 끼치고 갈가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그럿치안으면 무엇을 끼칠것인가

요기에 어느분은 가튼산 가튼물을가지고 창자가어이는드시 쓰어도잇고 또는 눈물이 옷깃을 적시도록 쓰이도잇다

더구나 그산, 그강에서의 여름밤이랴요

그러면 산에서 맛는 여름밤은 아름다운것이엇는가 강에서 맛는 여름밤은 울어든것이엇는가

『[illegible]三日 [illegible]新興에 [illegible]하여나려오는中 밤이면 旅亭에나리어 酒店에서 계게되엇는데 하로는—』 하고서 권상로(權相老)씨가 노령에 녯꿈에서 자아낸 울진이야기가잇다

또 차청오(車청吾)씨가 섬에서 지낸이야기가잇다

『南原에서 놀러왓다는 妓生을 다리고오니 그야말로 錦上添花로 興이 한層 더하엿다(中略) 春香이 운다는홍내를 낸다는것이春香以上으로 아주더설게우럿다꼿은 細雨을때가조코……』 하고서 씨의 풍치잇는 옛노리의 전경을 적은것이잇스니과연씨는 어느섬에서 어느 기생의울음으로 보앗든가

◇

또『梅蘭江……달이 휼로 놀흔 虛空에걸이 빗나고잇다(中略)밤의情熱! 혼락한 머리속에……』 하고서 열혈녀류시인 모윤숙(毛允淑)씨의 젊은녀인의 정만흔눈으로 매란강을보고 생각한 독백(獨白)이잇다

팔공산(八公山)바위우헤서 『우리는 둘이다 기픈苦憫과 所願을 가젓섯다』하고서 소설가장혁주(張赫宙)씨가 자연에게향해서 인간의 마음으로 이야기한 글이잇다

그외에도 박경호, 림화 류완희 리엽 김광섭 김환태 리헌구 황욱 거타제씨가 산과 물을 보고 생각하고깨닷고 그예원하는 근일에 드믄명문고(名文庫)이다

## 朝光七月號에名詩選集

인생에 시(詩)가 업스면 인간은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다 인간은 정서가 잇고 또 그정서를 표할줄안다 어린애의 말은 말보다시(詩)다 이 시가 자라는대로 인간은자란다 력사는 허무러저도 시는남고 인생은잣나도 시는남는다

여기서우리는 짧은시가치하고 생각을시가치하면 우리는 영원한예술을 거기서 볼수잇다 시를알라 시를스라 여기에 먼저 조광(朝光)은 호마다 시를실어서 피로된인생의 그네숨 어루만저준다

우선 여기에 그서들의 한구절식을 그려본

◇

청포도이에
쇠북을치네
뜻는이도업는데
쇠북을 치네

이것은 [illegible]의詩

◇

하이러히, 하이녜지부러
둥그란 오오나의려양도
겨우 끼리끼리의 발금치를
조롱조롱한나절 따러잇다

이것은 鄭芝溶의詩

◇

창으로 둥두는 그리운것이니
모도를 마음이달려서
옥수수의알알은 외로운주어거련다

이것은 許保의詩

◇

슴마키는 [illegible]에 새은떼글
이 솔러간뒤에
蜀都의 아중에 王朝의歷史는
간데업고
어느때로ㅣ마의 風俗은다장
한숨風의며다빌의
송내는國歌의 처량한곡조가
웬일이나

이것은 金起林의詩

◇

대조를 사자거며
고무신을 사자거며
떼쓰며
졸르는애를
달래다가 매를처고
긔어히
유연을 부러는
어머니의 눈시울!

이것은 曹雲의詩

◇

바래시야!
녀를 생각하은 이다지, 괴로
설움이뇨
바래시야
나의(울로방, 따우의 뜰)사이
앵

이것은 [illegible]의詩

◇

구름아
간밤은 어대씨
오젓은 명리뇨
어제 한낫도 거우렛습니
잠깐만 쉬어가랍으나
오오구름아

이것은 金東鳴의詩

◇

旅愁記의[illegible]은
임이 한나라의甘露를맘켜우고
玉階으스러지는 말곱소리에
香긋한술人盞은 歡樂의 꿈을
엮접으다

이것은 趙靈出의詩

## 여름의선물엔 名作小說特輯欄

### 鎖夏讀物로는이것이第一

### 十篇의新作小說만모핫습니다

조선의문단은 날로날로 그수준이놉하갑니다 그것은 일가를 일운문학인이 만하지고 또는 새로운감각새로운 관조를가지고나오는 신진작가제씨도 만허진관계도잇스려니와 독자제씨가 이소설을—조선사람의 생활과감정을 그려낸 소설을 얽기를조하하시고 또한이방면의 발전을 심축하시는까닭인가합니다

이번 칠월호에는 『소설특집』(小說特輯)을 햇습니다 리효석(李孝石) 리긔영(李箕永)강노향(姜鷺鄕) 한인택(韓仁澤)김유정(金裕貞) 송영(宋影) 안석영(安夕影) 함대훈(咸大勳)류치진(柳致眞) 리헌구(李軒求) 씨등의 소설을 모아 여름선물로드리거로 하엿습니다

그런데 이번소설들은모두가새롭고 단편 중편 장편등 한여름의더위는 여기서이즈실수가잇슬줄로생각합니다

점점가경에 드러가는 장편소설 새로운제재 참신한묘사로된 단편소설 모두가역작이며 칠석를 제처노시고 보실 소설들입니다

더구나 소설가가되려는이 근심만흔이들에게 이소설이얼마나 긴요한것인가를 아실것입니다

## 嫡庶를撤廢하자

### 적자와서자의싸홈이나흔비극

### 어떠케이참극이업도록할까

### 朝光七月號에痛論햇다

조선에서는 아즉도 여러가지로 비극(悲劇)의 연출이만타 그것은 생활에잇서서의 비극보담도 봉건적유습으로 이미테서신음하고 이것으로일생을 사람노릇을 못하고사는 가엽슨무리가잇다

우선한가지를들면 사나히만해세하든때에 사치와 야수적탐욕으로 남의녀자를데려다가 일부일부의 엄연한 도덕적 제한도 불구하고 첩을삼어 여기서자식이나오면 첩의자식이라고 세상에 버림을바덧다 이것이 무슨짓인가

여기서 오늘날까지 법정에서도 포계가되여 더구나 재산상속까닭으로 적서의 송사가잇는등 실로 목불인견의 추태가폭로되는일은 독자제씨도 익이목도하시는바이다

이에 『조광』에는 비인도적인 비현대적인 이악풍을 업새고자 적서철폐론(嫡庶撤廢論)을 실어 만천하 독자제씨와 이문제에대한 토구를 해보자하는것이다

여기에는 그저 개념적(概念的)으로 적서페지론을 쓴것이아니라 최근의 어떠한 중대사실을드러 이것을 립체적으로 해석하고 또 이것을 여러가지로 분류를하야 무서움게도 지적을해가며 적서분쟁에 대한 중대원인과 그의페해와 이에서 낫는 인생비극으로 눈물을 흘리지 안코는 읽지못하도록 긔록하엿고 새로운 해결책을상세히 또한 분명하게써노한다

## 姓가진이는다볼

## 姓氏淵源考

◇自己姓을아는이면진고

누구나 성(姓)을가젓지만 어째서 자긔가 孔가고 孟가고 車가고 柳가고를모른는이가 만흘것이다

『여보 당신의車가란 성은어듸서부터 나온것이요?』

하고보가 무로면

『내야알수잇소 車가라니까 車가지요』

어때서야 얼마나 창피한일이엿니까

『네 車가는 어대쿠저때에 서초된것이고 車가는 어대만히 살고 車가에는 엣날에 이러 이러한 위인이잇섯지요!』

이러케 척척대답해야

『참그이가 박학이로군!』

할것입니다

## 暗行御使出道

## 第一路 南原行

### (春香)의녀이노래하고

### 李道令당나귀타고간다

암행어사출도(暗行御使出道)!—

세상에 그게웬소리냐고하는이도 잇슬지모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조선방방곡곡이 암행(暗行)을 하지안으면 못보고 못드를 비절참절의 숨은사실이 잇는데야 엇지하랴

저—유명한 춘향전(春香傳)의 리도령(李道令)도 잇스러니와 지금조광(朝光)에는 긔자가 옛날리도령의 발자욱을따라 암행을나섯다

우선 춘향의 고향인남원(南原)을 향하야 방자도업시 길을떠낫다

남원에사는이들은 평범한지모르나 이 일폭그림가튼 긔사가 족히써 독자제씨의 흉금을 울릴것이니 리도령이 춘향을 먼발치로보고 책[illegible] 광한루(廣寒樓)를 [illegible] 춘향의 지내든 가 밧자여기 옥 해보내든 그리든 찾자내라

그러면 남원의 실정이 예와갓대 나 정말춘향이와 잇섯뜨냐는 어떤 면 암행어사의 보고서에 일홈히 기록되어 잇것고 또 그때 그농부들의 노래도 변치안엇는지 남원인사들도보지못한 예긔한긔자의 시각에 부듯친사실이 전개된다 얼마나 통쾌하고 흥미잇는 긔사이냐 이것도 잡지『조광』이 아니면 구해볼수업는 현금거룩긔사다.

## 世界는平和할가

## 權威잇는時事批判論

### 歐洲의尖銳化한風雲과豫言

달려어『조광』에는 세사논문(時事論文)에헌움를드려 누구나 일수잇는글이겟지만 또 쓰기어려운 글도 이글이다 해내해외의 신문잡지만보고 거기서 재료를취할수잇지만 여기에는 정치가로서보담도 세계인류에대한미래의 관찰이업고는안될 그러한 관찰을 갓지안코면 그것은 세상에 신망을 가출수업는 글이되고만다

여기에는 국민생활안정(國民生活安定)의 의의(意義)라는어느나라사람이고 읽을만한 글도 잇는여거서 그국민의 생각을 가저올수잇고 위정자들로도 경청할만한 조리가 꼿꼿한 명문이 잇다.

또는 독일과 오지리의 합병문제 서반아의 인민전선(人民戰線)과 서반아정국(政局)의동향(動向)등 현대인으로서 시국에대한 시야에 예리해야한다면 이는 글들에서 그어떠한 큰관조(觀照)를 어들줄안다

## 女性 七月號

京城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出版部發行 振替京城五八七八 定價 十錢郵稅一錢

# 朝光 七月號

◇녯바는表紙
◇어엽뿐畫報
◇實益잇는論文
◇滋味나는小說

# 斷然 朝鮮雜誌王

盛夏에 山野를 생각하시는때 엽지못할 七月號『朝光』은新鮮豊富한內容으로 여러분압헤 또 나타낫습니다 發賣되기始作하자 暴風雨를휘모라치듯 暫時間에責行되는이朝光七月號는 더욱七月陽光과함께 빗납니다

## 三十日發賣

絕版될念慮잇다! 定價三十錢 地方郵便 本社負擔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振替京城五八七八番 朝鮮日報社出版部

○……[illegible]人金剛

# 家庭

## 요새처럼 더운때 차게자면 병난다

### 배와발을 덥게할일

요새와서는 날이부적더워젓습니다 날어더워지면 잡지기에도 대단곤난해서 어른이나 아이들이 차게자기쉽습니다 잘때차게 자면 외좋일 몸이찌뿌듯하야불쾌하기짝이업고 또는 감기를들기도합니다。또어린애의 경우에는 위장이탈나서 역리(疫痢)가되든지 대장카타르(大腸加答兒)가되는데 이더위에이런탈이 잘생기기쉬운줄알면서 한때의부주의로 일을저지르는수가 잇스니 이점은 평소우리네가 늘조심하지안허서는안되는줄압니다

◇ 먼저도 말슴드렷거니와 날이 이러케더우면 몸을끈해도 잠이 잘안들기때문에 잠시자리가 고약해집니다 어른들가트면야 다소고약도하드래도 위험이 적지만 어린애들이란 암만해도 어른들과 가티주의할수업서서 여러가지 병에 체경잘걸리고맙니다 제일 무서운것은 뱃병인데 그중에도 적리라든지역리(赤痢、疫痢)가튼것입니다 예방을말슴하자면 배와발을차게안는것이 제일입니다 발의혈액운배를도라서가거때문에 발을차게하면 자연히 배도차게되니까 이점을주의하서야되겟고 배를더욱게 하자면 배두렝이를하는것 밝게 도리가업슬것입니다 요새 어린애들이하는 얇다란홋겹양복이만히 류행합니다만 보기에 시원해보이기는하나 배를차게할염려가잇스즉 배두렝이는반드시 해주도록하십시요 그다음으로 음식물인데、막우먹이지안토록하실것은물론 더욱이나 거리에서파는 아이스크림어름과자、썩기쉬운 풋과실은전하업서도 안먹일것입니다

◇ 이럭큼 주의를하서도 불행이 애기가 열이생겻슬때는 얼른의사의 치료를 바들것은 물론이지만 그전에 집안에서 한번쯤 완장(浣腸)을 해보는것도좃습니다 확실한것은 의사가 본다음이 아니면 모르지만 별로히 맹장염(盲腸炎)이 아닌상싶흔 경우에는 약방에서 파는 피마자기름을 먹여설사를 식혀버리면 대개열이식고맙니다 피마자기름의 분량은 십그람으로부터 이십그람까지쓰면 됩니다

그리고 끗으로 한말슴 드릴것은 애기가 병이 나서 머리가찜찔할때는 곳 의사를 보입시사하는말을 코우숨치고 흘려듯는분이만흔데 이런분일수록 입을 잘처지른다는것을 아라두십시다。어린애가 배탈이나서 동질을한다 또는머리가끌른다하다가도 자거저향려으로 어떠케낫는수가잇습니다만 어린애병은 의례히 그런것어거니하고 내버려두엇다 병이 크게덕처서 임중할때가서 『엇저나큰일낫네』하면서 쩔쩔맵니다 병이란 초기에 고치기쉽고 중해지면 고치가어려운것을 아시면서도 웨평소에 그러케등한히녀기십니까。

## ③ 가정에서할수잇는 家庭日光療法

城大松井外科 文仁柱

다음에쓴 표와가티 실행하면 조흘것입니다。

| | | |
|---|---|---|
| 第一日 | 一ー二時間 | 大氣浴 |
| 第二日 | 二ー三時間 | 大氣浴 |
| 第三日 | 三ー五時間 | 大氣浴 |

이와가티 대기욕을 맛친다음 나흘째부터는 일광욕을 차차실행할것이니 간단하게 표로쓰면 다음과갓겟습니다

| | 回數 | 足背 | 下腿 | 大腿 | 下腹部 | 上腹部 | 胸部 |
|---|---|---|---|---|---|---|---|
| 第四日 | 三回 | 五分 | | | | | |
| 第五日 | 同 | 十分 | 五分 | | | | |
| 第六日 | 同 | 十五分 | 十分 | 五分 | | | |
| 第七日 | 同 | 二十分 | 十五分 | 十分 | 五分 | | |
| 第八日 | 同 | 二十五分 | 二十分 | 十五分 | 十分 | 五分 | |
| 第九日 | 同 | 三十分 | 二十五分 | 二十分 | 十五分 | 十分 | 五分 |
| 第十日 | 同 | 三十五分 | 三十分 | 二十五分 | 二十分 | 十五分 | 十分 |
| 第十一日 | 同 | 一時間全身 | | | | | |

제팔일째부터는 등에도 일광욕을 해야할것입니다。표에보든바와가티 갑작이 몸전체를 일광에 쬬이는것이아니라 처음에는 발로부터시작하야 차차가슴에이르러 제십일제부터는 매일전신에 일광욕을 실행하는것입니다。그러나 얼굴은 선선한그늘진곳에 잇게하야 일광의 직사를 피할것이며 눈에는 색안경을 쓰시는것이 조흘것입니다 그날그날 일광욕을 맛친후에는 가만이 누어잇슬것이며 반다시 과한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상에 이야기한것과 가튼방법으로 정식으로 사오개월동안 계속하야 실행할것이며 떠나아가 일년이상을 계속하면 더욱 조흘것이라고 생각합니다。다시 말슴드릴것은 신체외부에 잇는 외피적질병은 처음에는 그환부(患部)에만 일광욕을 실행하야 그부분의피부가 일광욕으로인하야 검어진후로부터 먼저이야기한것과가튼 전신일광욕을 시작하는것이 조흘것입니다。

그러면 일광욕법은 엇더한병에 응용할수잇겟느냐。

폐결핵 관절결핵 피부결핵 림파선결핵등의 외과적 결핵병에 특히 현저한효과를 볼수잇습니다。이러한때에 일광욕이 다른 치료법보다 나은점은 전신의영양을 조케하며 저항력(抵抗力)이 늘며 통증(痛症)이적어지면 근육이 약해지지안코 관절의 강직(强直)이 생기지안는것입니다。그밧게도 치질 골절(骨折) 궤양(潰瘍) 골수염(骨髓炎) 구루병(佝僂病) 골연화증(骨軟化症)등에 효과가잇습니다。또내과적 질병으로 폐결핵 결핵성복막염 늑막염등에 효과가잇습니다。폐결핵일때에는 특히 주의하야 그병세에따라 의사의 치료를바다 실행해야할것이며 잘못하면병세를더욱진행시키는일이잇습니다

이상 이야기한바와가티 일광료법은 여러가지질병 특히 결핵성질병에 현저한효과를 어들수잇스니 아모런 비용도 들지안코 어떠한 약물료법(藥物療法)보다도 오히려 조흔 치료법이라고도 할수잇습니다。그럼으로 적당한주의와 일정한방법으로 일시적이아니고 장기간동안 일광료법을 실행한다면 반다시 상당한 효과를 바들수잇슬것이라고 밋습니다 (끗)

### 치질

問 금년 삼十세 소년이온대 이년전에 자전거를타고 약이백여리를 왕복한후로는 여름에 거름을 만히 걸으면 반드시 홍문근처가 쓸이고 진물으다가도 다음날아츰에는 낫고 또 진물으고합니다 수차양약방에서 약을 사다가 써보앗스나 효과가 업사오니 치료방법을 속히하교하여주시요 (西大門町 답답生)

答 자전거 타는것을 전치될때까지 중지하십시요 어떠한종류의 치질인가는 진찰치아니하고는 분명히 말슴할수업스나 어느것이든 약만으로는잘 낫지아니할것이오니 곳근치수술을 밧도록하십시요 누구나 수술을 끄리는모양이나 결국은경제로나 시일로나 수술하는것이 여러가지고식적치료보다 리익입니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金晟鎭)

### 겻내업새는법

問 소녀는 금년이십삼세이온데 이년전부터 식은땀이 만히흐르면서 겨드랑미테서 악취가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몸을 정결하게 하야보앗스나 여전합니다 땀이 안나면은 덜하나 땀이 흐르게되면 더합니다 땀을 못나게 할수업습니까 또는 악취못나게 할방침을 하교하여주시옵소서 (木浦一少女)

答 땀은 생리적으로 나는것이니 병이 아니라면 억제로막는것이 도리혀 해롭습니다 땀이나면은 의례히 개인의 체취(體臭)가함께발산하는것입니다 이체취가 특별히 맹렬하야 악취가나는것은 액취(腋臭)라하야 겨드랑미테서 발생하는일이만습니다 수술에의하야 피지선조직을 적출하면은 업서집니다 이와가튼번민을 품고잇는사람이 당혼한녀성중에 상당히 만흘것입니다 주저말고전문의사에게 이수술을바드시오 (城大小川外科 醫學博士金晟鎭)

## 우리차지

소『애들아 나는 오늘 또 약볏테서 논을 열마지기나 가랏다』

개『나는 집 직히느라고 오십리 거름은 햇나보』

도야지『말마루。나는어서 살찔랴구 헛간에 재어논 겨를한 말럭은 훔처먹엇소。아이배불러』

(글쓴사람 박치호)

## 動物愛護 ② 색기를찾는 어머니고래 (三)

崔秉和 / 崔桂淳 畵

큰배적은배들은 서로군호를 밧구면서 전장에나가는 군사들과 가티 의기양양하얏습니다 바다가에는 동리사람들이 겹겹히모여서서 호기심과 불안에 싸혀서 손에땀을쥐고 바라보고잇섯습니다。

벌서 색기고래에게로 갓가히 간 네척의배에서 일제히 급작스런게때는 나무꼬쟁이를 던지자 그리붉지안흔 만안은 갑작이 솟안의 물이끌른거와 가티 물이용소슴치고 야단법석이 일어낫습니다。

제색기가 위험한것을 눈치채인 어미고래가 성이낫습니다。커다란 날갯(鰭)을 번적드려서 배를칠라고합니다。배와색기틈에 뛰여드려서 자기몸으로 색기의 위험을 막을라고하고잇습니다。

세찬물결은 뻥글뻥글돌고 또 꽁중으로몃길이나 올라가고 물거품은 산산히 흐터저서 소나비가 오는것과 다름이업섯습니다。배는 이리기우러지고 저리기우러지고 이리흘르고 저리흘르고 사람은 이리쏠리고 저리밋그러지고 잇섯습니다。

『정신차려라』

『저쪽으로』

『이쪽으로』이러케 부르짓는소리가 용소슴치는 물결소리에 석기여서 간간히들려왓습니다。배는 어미고래를 피해가면서 거슬려나오는 밋친물결에 흔들리면서 점점 사방에서 색기고래에게로 조여드럿습니다。

어미고래는 날갯을 펴드니 그위에다가 색기를 태웟습니다。그리고 기선과가튼 세력으로 아플헤치고 나갑니다。색기가 기운이빠져서 어리둥절하고잇스므로 어미고래는 업고 도망을갈라는모양인듯하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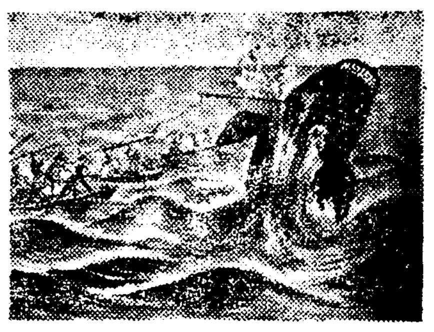
『이것봐라!』배사람들은 서로 군호를해가면서 일제히 색기를 견양하고 꼬챙이를 던집니다。

그러면 금방잇든 색기고래는 어되로갓는지 보이지가 안헛습니다。색기고래가 안보이니까닭은 어미고래가 색기가 위태한것을 깨닷자즉시 납새게 우에서 미트로 숨겨논까닭입니다。그러나 그것은 잠간동안이고 얼마안가서 사람의눈에 띄웟습니다。

『잇다。잇다。날깃미테잇다!』

꼬쟁이는 또 그곳을향하야 살과가티날너가고잇섯습니다。

『바로마첫다!』하는한소리가 기운차게울렷습니다。두개의꼬쟁이가 그여히색기고래를 꿰뚤엇습니다。그러자 어미고래는 색기고래를 밧작껴안은거와가티 기피 감추엇습니다 그러드니 쇄─하는소리가나드니 바다위에서 형체를 감추고마럿습니다。



바다위에는 물결에흔들리면서 적은배들이서로 어안이 벙벙해서 마주보고잇섯는데 물결사이에는 한줄기 붉은 피가 얼른거리는것으로보아 사람들은 색기고래가 닷친것을 알게되엿습니다 그러나 색기고래는 좀처럼 떠올라오지 안헛습니다。

『웬일인가?』

『도망가지나 안헛나!』

『어구를 단단히 막어노앗는데!』

여러사람들은 이러케 말하면서 물속을 드려다보앗습니다。

그때 배한척이 여프로 어떠케 도이 몹시 흔들리는듯하더니 불숙 커다란 등어리가 나타낫습니다。

## 連載小說 옥심이 【十一】

金廷漢 作 / 安夕影 畵

『아이구 수복아、수복아!』

하고、옥심이는 그제야 소리를 치면서두손으로 마당을 긁엇다。——

『너떠러저 내살수 업드라!』

그때 마침、산에 갓든 허서방이 집채만한 나뭇짐을 해지고 사립을 들어선다。그는 심상치 안흔 뜰안 광경을 우두머니 바라보드니、이내 알아챈듯이 아무러케나 나뭇짐을 버서버리고는、뚜벅뚜벅 아들의압헤 닥어서며、

『그게 누구냐? 왜 그러니?』

허서방은 짐짓 놀랜빗을 숨키며 뭇는다——。

『이년이 되돌아 왓서요。죽일년 가트니!』

『웅、수복어미로군。』하고、허서방은 잠간 옥심이를 내려다보드니、다시 아들을 향해서、

『너 그손 얼른 떼여라!』

『못놋켓서요!』

아들은 연해 끗는다。

『노호라면 곳 노와야지!』

허서방의 뚜렷한 눈에 불가튼것이 번쩍한다。그는 못맛당한듯이 아들의 손을 홱─뿌리치고 며누리를 안아 이르킨다

그러나 옥심이는 다시 싀아버지의 발미테 쓰러지며、

『아버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고 흑흑 늑겨 운다。

『왜 도로 왓니──?』

허서방의 말은 너그럽다。

『수복이를 이즐수가 업서서……。』

옥심이는 말끄를 못맷는다。

허서방은 그러케 되리라고 생각한것이 결국 그러케 되엿다는듯이 고개만 두어번 끄떡거리고는 다시 며누리를 안아 이르킨다。

『아이구 저런 웅천 좃봐! 그만 속아넘어간다。애도 끈도 업는 사람!』

마누라의 빈정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허서방은 겨테잇든 지게작대기를 들어서방을 향해 핑─더진다。

『에─기 가살이 가른년!』

작대기가 밀창살을 직근 부스고 방안으로 튀여들어가자 안해는 그만 죽은 쥐가티 끽소리가업다。

그러나 천수는 참다못해 아버지에게 왈칵 덤벼들며 옥심이를 뺏으려고 한다。

『이놈이 미첫나?』

허서방은 아들을 힘대로 떠─어버린다。

천수는 두어발이나 나가 잣바지면서

『그런 잡년을 집에 두겟단말요? 집안이 망할라니 참……안돼요、안돼! 내가 죽엇스면 죽엇지、그년은 쪼차내고냐 말거요。』

천수는 연방 악담을 하며 분예바처 원곰을 떨어댄다。

『네가 나가거라、이 더러운놈아! 그러치안흐면 나를 조케 잡아먹든지。전라도 소록도가그리무섭드냐? 야이 소가튼놈아……!』

평생 꿍둘잘안내든 아버지의 크다란 눈에서 갑작스리 싯퍼런불이 활활 떠러젓다。

천수는 그팔팔하든 긔가금시에한풀 꺽기고 뿔빠진 솟상이 되여서、원망스럽게 아버지를처다볼뿐、다시는 두말도업서 그곳을 물러나왓다。

이윽고 내건너천수의 움퍼리에는 불이 부러올랏다。

옥심이는 그말을 듯자 불시에 미친듯이、이러나는 쓰러지고 쓰러저서는 다시 이러나려고 몸부림을 친다。그리다가 결국 아버지에게 손을 맛기고 간신히 울타리에 몸을의지해서、불시길을 등지고 떠나가는 남편의 그림자를 제눈으로 뚜렷이 본다음에야、비로소 마음이 노히는듯이 그자리에쓰러진다。

허서방은 올연한 아들의 뒤뜰을 끗까지 바라보다가 혼잣말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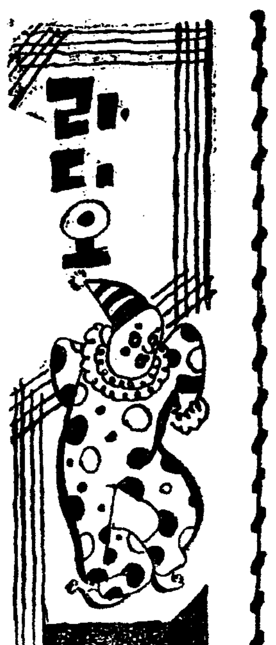
『제─기 나도 문둥이나 되엿드면 소록도에라도 갈것을!』

옥심이는 그때처음으로 싀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구경햇다。그는 그러한 싀아버지를 떠나간 남편보다 더욱 가이업게 여기고、영원히 모시고 도으리라고 속으로 맹서하엿다。(끗)

訂正 第八回第三行으로부터 第二十七行까지는 第四十九行아래로 들어갈것이 誤記되야 筆者와讀者에게 한께未安합니다。 編輯者 白

★曆★ 七月一日(水) 陰壬午五月大(十三日) 甲申‧水‧箕‧滿
●祭祀嫁娶移徙裁衣開市納財安葬에吉함
●夏至二十一日(舊初三日) 小暑七日(舊十九日)

## 라듸오



### 三十日 (火曜)

◇午後六時三〇分 라듸오世界一週修業旅行『덴마크(二)』 培材高普 辛鳳祚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尹乙洙
◇同八時 講演『演劇과人生』 柳致眞
◇同八時二〇分 才談二題 一、神主明府貴 二、[illegible] 崔星源
◇同八時五五分(東) 피아노獨奏 〃[illegible]〃作品三十五、[illegible]作曲 [illegible]
◇同九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老人歌 二、唱劇調 沈淸歌 方應敎 鼓手 韓成俊
◇同一一時 레코ー드音樂 (波長變更試驗放送)

第一放送
◇午後六時(東) 傳說이야기 坂本功
◇同六時二五分(東) 靑年의時間 各國의學生生活
◇同七時三〇分 講演과合唱 講演 榛居俊一 合唱 專賣局有志
◇同八時 外科手術과講演 小川外科中繼
◇同八時三〇分(東) 浪花節
◇同九時五分 피아노獨奏 木村重勝

### 一日 (水曜)

◇午後〇時五分 俗曲 一、굿거리 二、唐樂 三、상아회(奚琴獨奏) 四、방아타령 五、楊山道 六、江原道아리랑 七、靑春歌 奚琴 池龍九 細笛 高載德 短簫 崔壽成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식연한녀름料理몃가지』 尹德喜
◇同六時三〇分 童謠 中央保育童謠會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一)『昆虫의生活』 金秉河
◇同八時 中船豊漁노리風景 (全國中繼)『漢江江邊으로부터中繼』
◇同八時二〇分 唱劇 春香傳 奧太石 外
◇同九時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제비가 四、小春香歌 趙牧丹 李竹葉
◇同九時三〇分 管絃樂 (레코ー드演奏) 一、組曲〃火鳥〃…스트라빈스키作曲 序曲 火鳥의춤 公主의춤 카스체이王의춤 자장가 終曲 二、前奏曲 A플랫트長調…쇼스타고윗치作曲 필라델피아管絃團 指揮 스토코우스키

第一放送
◇午前六、三〇 英語講座 山田巖
◇午後〇時〇五分 落語 春風亭柳好
◇同六時 (東)獨唱과齊唱 獨唱 中山梯子 齊唱 미도리會會員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 鹽谷榮
◇同六時三〇分 講演 中村榮孝
◇同八時三五 (東)映畫劇 小林十九二外
◇同八時五〇分 (東)謠曲 近藤乾三外

### 二日 (木曜)

◇午後零時五分 伽倻琴併唱 一、短歌 楚漢歌 二、唱劇調『春香歌 獄中歌』三、赤壁새타령 元弄月 鼓手 韓千洪
◇同三時一五分 婦人時間『어린니와녀름疾患』 醫專敎授 金奭濟
◇同六時三〇分 童話『정나라』 韓相震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課外講座 (二)『X光線』 呂
◇同八時 講演『滿洲國과朝鮮人』(一) 醫專外科 張起呂
◇同八時三〇分 바이올린獨奏 鮮于全
◇同九時 關山戎馬外 一、關山戎馬 二、孔明歌 三、기ー나리 四、寧邊歌 五、방아타령 崔貞子 金秋月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春眠曲 二、乾坤歌 鐵點紅 金鳳仙 大笒 金永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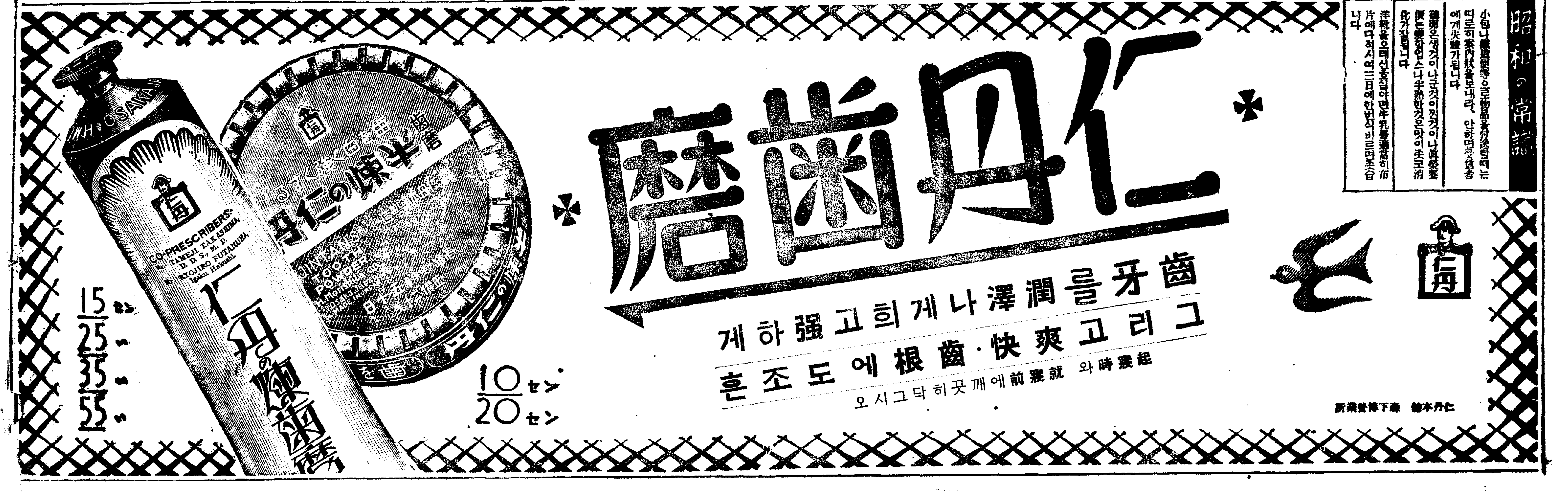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東) 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郎
◇午後〇時五分(東) 喜劇 曾我廼家五一郞外
◇同六時 童謠 林光子外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同八時(大) 하몬드올간 獨奏 田中池演外
◇同八時二〇分(東) 齊唱 春日도모社中
◇同八時五〇(東) 小唄 橫山연다쓰
◇同九時一〇分(大) 浪曲漫談 杉浦에노스개

## 昭和の常識

小包나荷造便等으로物品을發送할때는 따로히案內狀을보내라、안하면受信者에게失禮가됩니다

鷄卵은생것이나구은것이나찐것이나半熟한것은맛이좃코消化가잘됩니다

洋靴를오래신을라면牛乳를濕布片에다적시여三日에한번식바르면조흡니다



# 貧困과苦難의作家
## 고리키ー의生涯와藝術
## 그의突然한訃報를接하고
(完) 咸大勳

그는 一九〇七年 그는 저 有名한 社會民主黨의倫敦會議에 參席하야때로 露西亞政府에對한 反對的氣勢를 올리엿다. 그項目中에는 特히外債募集이 不可한것과 또××運動을 鎭壓하기爲한 資本主義國家하려는 佛國政府에對하야 抗議를하엿다.

이러는동안 그翌年인一九〇八年에는 레ー닌과 또한晋倡을通하엿다. 그것은 社會民主黨이 組織되어고ー리키ー가 카프리島에서 熱心히後援하는동안黨과 密接한 關係를 맺게되엿든것이다. 이러하야 「고ー리키ー」의 名聲은海內海外를莫論하고文字그대로 노파저서 그의全 作品은 出版되는대로 大量的으로 實行이되어적지안흔 收入이 잇섯다. 그러나그는 그돈을私用에 쓰지안코 黨에寄附하는同時그 機關紙의 文藝欄을 擔當하야 執筆하고 아울러出版事業도 主宰하엿다.

이러케 그는 良心的인 立場에서 社會에 奉仕하게되엇스나 一時는 精神上動搖도잇서 新生活이란 新聞에 불세비키行動에對한 批判을 加하며고ー리키ー는 레ー닌과 相離하게되엿다 이적「고ー리키ー」가「레ー닌」과 意見上 相違가되는것은 知識階級問題이엿다 「고ー리키ー」는 知識階級이 十月××을 敵對視하기때문에 만흔 苦痛을 感하는줄알면서 知識階級의 立場에 잇게되엿다 그러나 「고ー리키ー」와 黨과는 이러한 間隙이 머지안허 除去되엇스니 그것은 그가 ××的社會活動의 發展에伴하야 그의偉大한 天稟도 發揮되엿때문이다 더구나

一九〇七年 「어머니」를 少說이 發表되자 一部 評論家는 그의 天才가 退步되엿다고 批難하엿슴에 不拘하고 그의 名聲이 가진바 基礎는 이를 擴張하야 世界프로레타리아ー트에게 歡迎되고 愛讀되어 世界讀者界에 斷然人氣를 끌게되엿다 「遍途ー國에서만도 數十萬部가 賣盡되엿다는것만으로도 우리는 그當時 그의作品이얼마나 노피評價되엿다는것을 알수잇는 것이다 그런데 「고ー리키ー」는 이런 人氣속에ー一九〇九年에는 戱作을쓰고 그翌年인 一九一〇年에는「마님」「一九一一年에는「마트베이‧코제마ー긴의生涯」를出版하엿다 그리고 다시 繼續하야 作者의 一生涯를 그린幼年時代,「사람들가운데서」「나의大學」「크림삼긴의生涯」를 發表하야 文壇에 센세이슌을 일으키엇다 이들作品은 全體로서約半世紀에亘한 露西亞의偉大한抒情詩를 形成한것이다

一九一七年 그革命의 荒波가露西亞를휩쓸고는 자베ー트政府에 積極的으로 參加하엿다、그리하여「世界文學叢書」、發行委員長으로 學者生活改善委員長으로 活動하엿다 그리하여 이委員會는 ××時代로시어 學者保護事業으로 큰 任務를遂行하엿다 그러나 그는 그의 宿疾인 肺病으로 健康이 不振되여 同志레ー닌의 勸告로 「오렌지」와 「오리브」香氣그윽한 南歐伊太利로 轉地의길을 떠낫다.

그러나 그동안 健康이 恢復되지를안허 一九二七年 革命十年 記念에도 또 一九二八年三月 그의生活 三十五年祭에도 參加하지못하엿다 다만 主人업는 祝賀會가 이全聯邦에 宏大하게 擧行되엿슬뿐이엿다.

그러나 數年後인 一九三一年 五月 그는 健康한 몸으로 歸國하엿다. 그가 도라오든날의 그를歡迎하는 狀態는 하늘을 찌를듯하엿다.

더구나 蘇聯藝術의主要한 劇場을 爲하야 「에고ー르‧리쵸프」를 써서 그 演劇의 大成功을 博하엿다. 그 後 다시 「도스기케르와 其他의사람」이란戲曲을 쓰는一方 자베ー트文壇에 老大家로 活動하든 그는 마츰내 數日前인 六月十八日에 그의宿疾인 肺病으로 이世上에서 永遠히 떠나고 말엇다.

그의葬儀는 國葬으로 宏大히 擧行되엿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온懷날 이 世界的인 巨匠의作家의 死에對하야 藝術感한 哀悼의 意를 表하는 바이다

(蘇聯近時의 그의 藝術一般에 亘한 硏究論을 쓰랴햇스나 最近筆者의事情으로 이만그의簡單한 生涯만을쓰고 後에 다시 再論하련다.)

# 學藝

# 批評私論 (三)
## 科學的態度와 袂別하는나의批評體系
白鐵

이런先輩들의 批評에 對한態度를 보드라도 批評이 理性과 客觀과 科學에 屬할것인가 또는 心情과 感情에 屬할것인가는容易히 決定할수업슬것시다! 또한 그意味에서라도 단순히近代의 主要批評家가 屬한

**批** 評體系가 理性과實證의 것이엇다는事實만으로서는現在내가 그것에 反逆하고 主張하려는 그心情과 感性의 性格의批評에對하야 前者의優越한 點을 主張할 權利는 업스리라고생각된다!

그럼으로 文藝批評이 理性과 實證의것이냐 感性과 心情의것이냐?라는 形式으로 問題를提出한다면 現在의 나로서는 亦是 輕率히 決定하는 態度를 삼가려고 하는바이나 다만 여기에대하야 다음과가튼 事實만은 確信을 가지고 主張할수잇다. 그두가지性格의 批評이 어느것이나 그의 對象인 素材의 眞實, 作品世界의 眞理的彼岸에到達하는것을 究極目的으로 한것이라면 前者는 是岸에서 그彼岸까지의 遠路를 거러가면서온갓 實證과 例擧와比較等의 數多의 다리(橋)를 지나서 그彼岸에 到達하는代身에 後者 即 心情과 性格의 批評은 一躍하야 是岸과 彼岸사이의 深淵을 飛躍하는데서 瞬間的으로 到達하는것이라는것 그것만은 確實한 事實인줄안다!

그러타면 이때에잇서 가령二人의 批評家를 두고생각할때에 一人의 批評家가 間道의

**遠** 路를 通하야 目的地에 到達한것을 一人은 直路를 通하야 훨신 빠르게 가든目的地에 到達하얏다면 그것은 明白히後者의勝利가 아닐까? 여기에는 다만時間的으로 後者가前者에勝利 햇다는것을 意味할뿐이아니라 文學世界에는 特殊한秘妙한 事情이잇다는것을 含蓄하야는 말이다 實際의生活에잇서는 遠路를 通하나 直路를通하나 結局 가든 目的地에는 到達만하면 그旅行의目的은 實現되엿슬는지모르나 文學에잇서는 그것은 오직 直路를通하야 瞬間的으로 飛躍하는 過程이 아니면 到底히 그彼岸에 到達하지못하는 境遇가만타 아니 文學의秘密境에는 언제나 이瞬間的直路의 飛躍에 依하야서만 到達하는것이 一般的眞實이다! 여기에 두가지批評型中에서 後者 即 心情과

**感** 性에 依하야 直接으로 文學的眞實가운데 뛰어드는편이 前者에 比하야 훨신文學的이라는것은 이러한 藝術的意味에서다 거기에 前者에比한 後者의 優越한 點이잇다고본다! 또한 내가 그 두가지批評型 어느편이 優하고어느편이 劣하다는것을 決定하는데잇서서 언제나中間에서 中庸의 道에 處하는것을 不肯하는 나로서 前者에 反逆하고 後者를取하여 그것을 批評의道로서 主張하는것도 그편이 主觀的으로 나의 基本性格에 適當이 合當하다는 意味이외에 이와가티優越한 文學的眞實을 생각하고잇는 때문이엇다! 여기서 나의 所信을 더욱 强하게해주는것처럼 아란은 다음과가티 말하고잇다「批評家는 그들의 規準을세워노코 批評을 하는것이나 失敗다! 왜그러냐하면 批評家는事物의 本質을 探求하면서 그實在를 否定하고잇는 까닭이다……反省은 도리여思想을 稀薄케한다!…文學에잇서

**眞** 實바게 업다 하나 文學 따라서 批評은 그眞實을 記述하는 說明以外의方法으로 求하여야한다!」고 文學이란 그것이 創作이든 評論이든 그것은 科學가티 說明과 實證等에依한 것이아니고 直接으로 心情과感性 그것이 그의本性格이라는것을 意味한것인줄안다!

또한 그런까닭에 여기서批評에對하야 理性을 主로하는것과 感性을 主로하는 두가지性格을 評論한다고 하더라도 亦是 文學의本道로 볼때에는 心情的이고 感性的인것이 文藝批評의가장 重要한 性格으로보고 시프며 또 그自信미테서 이批評私論의 主題를 決定하얏다고 確信하고십다! 왜그러냐하면 批評도 亦是 文學인 以上 그것도 文學의 基本性格인 心情과 感性을 그의 主要性格으로 삼어야 하는까닭이다! 文學은 理性的이아니고 어데까지든지 感性的이고 心情的인 점에 그性格과 特徵이 잇는까닭이다!

以上과가튼 **主** 張에對하야 或은 다음과가티 反駁할는지 모른다! ──文學精神 그것을 全然 否認하는바는 아니나 一般創作에 比할때에 創作보다 比較的 理性的이라는 相對的意味에서 그批評精神을 主張함이요! 批評에서 文學精神이 理性的!이라는것은 단다!라고.

江村所見

# 裏腐草 ⑦
女流隨筆　劉如玉

恨! 恨! 恨!

天下恨事가잇다면, 美人薄命도그것이요, 英雄志士不遇도그것이다. 그러나 그것은오히려 겨딜수가잇다. 참아 못할일은 良馬匹夫와 好妻拙夫가 그것이다.

好漢에 駑馬는보는者가 憫迫할뿐이요, 好漢自身은 도로혀 그 衿憐이 駑馬에게 미칠지라, 好漢에게야 傷할이업겟지만 好妻에 拙夫는 拙夫그대로가 限界하려든다. 너의두치(二寸)를 끈허서 나의한치(一寸)를 짤으라한다. 甚한苦痛이다 가튼한치 끼리는夫婦나 달은한치는 嫉妬(男子든부러의)의 對象이다. 七去에嫉妬를 버젓이 끼워노핫다 무릅것도업시 男性(拙夫)自體의 反映이다. 女子의 嫉妬는 男子의挑戰이요 또女子의 敗北이다 그러나 男子의嫉妬는 오히려勝利를目期한다. 더욱 붓그러움일이다.

×

奈翁一世는 그의안해「죠세핀」에게戰地로부터 글월보처「女子는 家庭에잇서서子女生育하는것이天職이지 政治에參見하라는것은아니라」고하얏다 또年前에伊太利 무首相의 입에서도 이와비슷한 소리가나왓섯고 近者에는 獨逸「히틀러」가다시 이말을흉내내엿다 저네들은英雄이라는 이의所謂 女性觀이 이러하거든 又況凡夫라 拙夫랴 모다自己反省이 不足한탓이다.

聖人은聖人이여지好男兒는아니다 儒敎道德은 獨突라 勿論하고 佛敎의女性觀도 甚히貧弱한 것이다 女性禁斷으로 戒行을삼을뿐이요 回敎는多妻다 오즉基督만이女性을 親切히 待接하섯다 (自己도그만한待遇를 바드섯지만)

「마리아」는 그의어머니시요또 그이는「마르다」의동생「마리아」를 사랑하섯다 聖堂에는聖母「마리아」의聖像을뫼시엿다.

×

나의 尊敬하는 어느분께 이런말을드럿다.

「나는 이世上女子로서 내가 그를 戱弄한다거나 乖禮로서 對할女子가 한사람이라도 잇스리라고는 생각지안는다. 나는女子를對할때에 먼저나의어머니와 나의누이를 생각아니할수업다」고.

얼마나 敬虔한態度냐. 그러나나는다시물엇다.

「그는四海同胞主義에서 一步도前進이어업는 한平凡한思想이다. 亦是男子인以上 男子로서의 女子에對한 愛情의發路를 늣겨본적은업는가」고

「잇다 標度의熱情이다. 熱情이니만치 決코식지아니한다 또 사랑이타느니만치 스스로 愛慾의재가되면되엿지, 決코나를 爲하야 그를 傷하고십지는안타. 사랑은사랑 그대로가 사랑이다.」

「사랑의量은?」

「그의礎地가 그의人間味에 缺陷이생기게까지, 그러케慘憺한 境遇에빠진 사람일수록 더욱만흔사랑으로 對하게된다」

고하얏다. 발서그는 戀愛의對象體가 아니라 慈愛의 信仰格이다.

춤이추고시퍼

「째즈」의리ー듬에「스텝」을 떼며 돌아가는 波紋, 異性의香내에 陶醉한世紀末的氣分 그곳은 沼澤이다 濕地다. 마치潰疾患者의 血管속을 周廻하는「마라리안」菌과도 가티 男女가안고돌고 끼고돈다. 亂舞다, 狂舞다.

×

탕고‧폭스‧불루ー스‧왈스……四拍‧三拍‧二拍. 西洋舞踊는 반드시 들이춘다. 그도 異性끼리 추어야 格이란다. 여기서 더욱 魅力을 늣기게된다.

발길을 목목 던지며 엇개를 웃숙웃숙 딸을 추석추석, 고개를 끄덱이는품이 마치 저의스스로가 疑心하기를「우리가 사람이냐, 김승이냐」란는 斷案에 苦悶하는 발버둥이거티 보일뿐이다.

×

「코리ー아에 毒崖되지안키를心祝한다.

社會의 어느一部은 熱情이 이「마리아」論이다. 標準病은「커리ー어놀고 한단 이커리ー어가 우리다. 나는……

×

춤이 추고시퍼! 車中의 人과 서로 몸잡고 天難야 물며 지거라하고 마음것추고십다. 나의파ー트너야! 大陽가으서지도록밝고, 太陽을 쫏아마칠때까지 손길을펴자. 나의夢中의人은「마우에르」를 世ー!!

×

伊太利의리비에라地方은 藝術의 樂園이요 印度의시라라는 靈魂의理想鄕이란다. 나의 님은 그어데게시요? 五月의 하늘을 「실라」에憂住하시나? 或은「위드까」에 馬車」에 기대여 떠돗는곳「오로라 맞업는길을 그대로달리시나? 은사上이 「골드‧라쉬」에 놀랫스니 님도赤熊에 어딸라찬山을넘어「오테키山」으로 山으로 넘으나 넘은大陸을한거를째며 가시나! 부르나 부르나對答이업다. 소는所聽은 구비구비 타는가슴은 마디마디. 마침 故宮에나는 장끼소리 有心도하다.

# 漢詩
## 綠陰　押鶯
桐岡考選

佳作五之七　新義州 白盧堂

千林萬卉雨初晴
擁盡殘紅綠滿成
微漾波光澄海宇
輕霏嵐氣暗山城
剩將三夏淸凉味
解釋群生熱鬧情
世事雖黃行足閒
午窓睡起一聲鶯

# 紀行
## 六月의藥山東臺 (2)
玄極野

번국새소리 솔나무香氣노픈바위길로오르기約三十分 藥山東臺門을지나면 곳藥山東臺에이른다. 一望千里미테는 九龍、淸川大寧의 諸江이 白沙千里의野를흘러 黃海로넘과 接하엿스며、博川泰川멀리義州方面에山峰과 푸른들이 구름과가티 이漢景을이루고、泰川의三角山 雲山의白碧山 寧邊의天燈 五峰天燈의 諸名山이눈아래들어 二道數十郡의 山川이 初夏의微風과 안개속에 잠기어 한눈으로 爽快하게 가슴을 여러준다 노픈한울은 限업시 열리고 그아래斷崖에는 數千尺의 屛巖을차고 새들이날며 名山의 푸른灌木들의 어린애와가튼 高賦이 스치는바람결에 들녀오는 것갓다. 臺上에는 天然의 石階를일워 盤岩에는 數十人宴席에 넉넉하고 盤岩으로부터 北方數步 東臺라는 큰刻字가 잇스며

怪岩石層의 石面에는 예로부터 색여온 貴紳雅客의 碑林이奇異한印象을준다. 北便으로 발을옴기면 斷岩거너 直下數千尺의 학벼루(鶴崖)가 매서운 岩壁을이루어 險한山路가 좁처럼사람을갓가이하지안는다

그러나봄、진달네이가滿山을덥흘때 가을丹楓이山谷에찰때「鶴崖」우에기여올나 돌을굴리고 노래를부르며 고요한午後를 감하든 넷동모들 가르처든天眞스러운少女들 追憶은머리에떠오르며 이곳저곳에서 눈에암암하다 멀리 溶溶히흐르는 淸川江우에는 흐르는듯대를 바람에 맛기고 하로의疲困을江바람에보내여 한가한배노래 은은하게흘려 夕陽을청한다. 고요히해버치愛撫를 밧는 파란잔듸와 힐대로힌白沙 꿈속가티 孤寂한비츨띄우고 잇다. 環城五十里山嶺우에소손 鐵甕城은 날은옷입은 완고한老人의 表情으로 말업시 무엇을아려재리라는듯 뭐다남은 피줄기의소래 어데인지 아득도 남어잇는것가타 自然은 내에게업지 못할惡趣이엿다 알수업는 神秘의 채직마즈며 悟한 종생인듯 父母도 恩師도 모르는 이가슴을 위로하여 준것도내生命의密會所로 이人生의파노라마와 가튼 意識의 洞窟을떠나 모든物象의 意識과서로 交會하는 靈照의 舞臺도이곳이요 내속에잡자는속生命의 少女와가튼 山姿態를 처음본곳도이곳이다 나에게서 떠날수업는 靈感、언제나 내 呼吸과가티 必要한 纖維이다 自然美그것보다도 扮演한都市文明의 世代일수록 큰意識과속生命과의 交觸하는곳이 必要하다 宇宙의 生命의音로 魂의 눈을 여러주는 거룩한곳 이곳에서 우리는 잃엇든 生命感과 矜持를 차즈며 愛好보다는 內的情熱의 莊麗한날개 생풀가리 이은몸을 적시는 藝術感의樂地를다시찻는다。미켈란젤로와가튼붉집 베토벤의生命의洪水 이들으가슴속에갑초인 火山脈에쫏기여 산사람들이다。알수업는重荷와威脅에일흔魂들이 이땅에어디서諦吟할가 그러나 너머도맙업슨 웃을줄모르고 웨칠줄모르는藥山이엿다。西쪽하늘을가린무서운疲憊의表情이 하루의空虛와 疲困에한마음에 모든感情을넘은 쇠의意志를 말하여주엇스며 山속의고요한적은뭇이 이땅우에서 숨쉴 純粹한無意識의 甘美에쉬게하고 山谷의靜閑이 幻覺에날애룰주어 宇宙意識의빗나는‧冥合으로 自然들의 沈默의 威脅에서 나를안어 주엇다한들 갓뿔도모르는山 우슴모르는山巓이엿다 맛치내가슴속에 위치지못하고 부르짓지못하는 世紀와 自然들과가티‥‥。어떤속은屍衣씀씀한그늘이 네얼골을덥고잇느냐 이山을 웨藥山이라고 불럿든고 ?藥草가만히나서 藥山이라기도 하고 山下數町樓雲寺의 石傍에 藥水가잇서서 藥山이라고도한다 異常하게도 臺上에서는 至今까지 千客萬來하나 그러떠러진사람이업다고하며 自然形의 怪岩에는 여러가지傳說을 남기고잇다

大陸群山波 長空一海來
人間無比石 天下有名台

의名句도 頂岩盤石에잇다.

즐거운솔속에서 나부기는시원한바람에 나를이즈지 한時間혜는 西天에 외로운뭇과가티떠잇고 暑한헤빗속에 海原가숨어든다. 神秘에덥고 잠자는 藥山을에게 그림은 마즈막 一瞥을던지고 섭섭한발길을돌리나 멀라 右便섭地의市街에서 나는밥짓는 煙氣속에서 날으는가마귀떼 어듸를向하는지 숨가지를 두고 이상하게고요하야 서늘한 바람만이 솔가지를흔든다。낫익은山길 잇지못할 어둑한 숲사이길 풀향기 소나무냄새 追憶의 꼿비를──밟을따러 주름길노발을재촉하엿다.

「藥山아잘잇거라 明年에 다시보자」라는 傳說는내입에서도 어느새흘러나왓다. (六‧二〇)

# 盛夏風景 (三)
安夕影

여름 서울의 淸溪川은
이도시사람의 마음이다
서양사람이
이 구룸을 개천에서
빨래하는 여인들을 사진을찍는다
이도시 사람들의
구저분한 그만틈이
이땅의 력사에 뚜렷이적혀잇다
해는 팍 이청계천만비치는것
가리
내놓울 멀도록 아프게한다
◇
서울의 여름밤길에는
가난한사람들의 行列이 지나간다
그들의 말은 집웅버서나
流浪의 길을 늘ー것고잇다
「메소포타미아가
「에덴동산이라하지만
人類는 그故鄕을잃기때문에
싸홈이 잇는지모른다
지금 그行列들은
自己의 故鄕을일흔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故鄕을 찻지 안는다
그것은
벌서 神에게 버림바든사람이기 때문에‥‥‥
◇
아이스 커피ー에
現代都市人은 벌서 中毒이드럿다
얼마잇스면
커피ー戰爭이 날지모른다
阿片戰爭이잇섯든거와가티‥‥‥
◇
빨가숭이 아이들이
큰 길에서 뛴다
그애들이 現代文明을 모르는 것이 幸福이다

#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海東騷壇

# 讀者社交室

◀文學에 뜻이기프시고 思想이 高潔하신 孤影兄! 지금은어듸서무엇을하고 계신지요? 흘러간 三年前남다르든 抱負를 가지시고 海外로오서서 艱難苦鬪하시면서도○○을 爲하시고 苦悶하시든 그열정의 所有者이신 兄이 몹시도 그립고 보구시프나이다 항상말삼하시든 北滿洲一角에서 그빗난뭇으로 異域의 哀調를 그리시면서 落日을 가리하시는지? 그러치안흐면 어듸서게시는지 甚히답답하오니 이社交室을 通하여 消息과 住所를 알려주소서 廢城에서 寂巢

◀黃海道松禾邑에 살다가十二年前에 집을떠난그후 死生을몰라집안사람이 늘군굴노지내니本人의住所나 社交室에다 直接편지로알려주시오 慶尙南道梁山郡校洞서 十年前에편지가 동무에게잇다고하나 알길이 업습니다 兄名尹泰睦 官名承辰 當年三十歲 母親은 平壤府柳町一番地八號 尹亭基입니다

▲本人은京畿道出生當年二十五歲未婚靑年이온대 昨年三月에日本內地某高農을 卒業하고 方今歸家하야 將次農場을 經營코자 設計中이온대 中等敎育을 바든 二十歲內外의 處女로서 該事業에 趣味를 가질만한配偶者를 求하오나 有意하신분은 當者의 履歷及寫眞을添付하야 讀者社交室를 通하야 問議하여주기를 楊平邑內 KWS生


# 絢爛한天分의爭覇戰
##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ー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 申叢記 (五二)
連載野史
申鼎言 作　金熊超 畵

이잔만은사양

아아울노의 전군이 이에 전멸을 당하로부터 녀진군과 서 달려오든 거리 (大鈴龍)을 당도하려복병의 습격을 때하얏다.

그리고 그 남어는 제각각 뿔뿔히 국으로 도라가 그 저저히 말하얏다.

금시왕자(金始王子 나온 소식을 듯고 다시 군사를 모와 대패한 분푸리를하고 모든준비를 시며 고려군이 르러 아아울노의 웅치아니하고 그대로 게 닥고잇섯든것이 속이엇든것은 물론이 발군을 보낸것과 군 리한 군사를 뼈바 혀 도망질을 식힌것 교속이엇다.

그리고 김선봉이 낼때에 귀에 입을 히 이른말이 즉 『우리군중에 약한 어 조원수이하 여 모두 병석에 누엇 라고 말하기를 가르 그런데 일즉 아아 려군이 집문용을 굿게 을 웅치아니하는것이 교속인줄은 알엇스나 무엇인지를 몰나 궁 하든중 그보발군과 장한 군사의 말로써 병으로 말미암아 진 다든 까닭을 알게되 그러나 그것이 모든 줄이야 어찌 짐작하 아아울노가 이렇 속어서 크게 패하게 선봉이 일즉 백운 『아아울노는 용맹으 는 적은 장수다.』 하고 일너주든 그로 히 생각하지아니 하야 울노를 만나자 먼저 그를 잡으려든것이어 뜻대로 크게 공을 조원수가 김선봉으 것이엿다.

군사하시려도 상하지 아니하고 큰공을 세운동을 먼저 글로써 고종께 자서히 알외고 곳 환군의 길을 떠낫다.

조원수의 행군이 도선갈가지 이르자 고종왕께서 돌비게까지 거동하사 조원수와 김선봉에게 친히 어주 삼배를 내리시고 그 남어지 군사에게도 큰 잔치로써 그수고를 위로하셧다.

그리고 왕께서 환궁하신 뒤에는 즉시 그 전공(戰功)을 따하 각각 상을 내리실새 원수 조충은 도원수(都元帥)겸 평장사(平章事)를 제수하시고 김선봉은 부원수(副元帥)를 제수하시고 그남어지 장졸은 다 각각적당한 벼슬로써 그공을 후히상 주셧다.

이에 원나라는 송전한 것봄에 날뛰고 거의 위태하얏든 송조(宋朝)는 다시금 태평성대를 누리엇다.

그런데 고종왕께서는 여러장의 론공행상을 마치신후 다시 김부원수를 부르사

『경은 진실로 국가의 주석(柱石)이어니 잡시라도 짐의 겻을 떠나게할수가업스나 거란의 남은무리가 안심할길이 업슬뿐아니라 서경(西京)은 중지어니 경이 아니고서는 그중지를 능히 막을수업고 경에게 그런 중지를 부탁하지아니하면 짐이안심이 안되노니 경은 짐의뭇을 바더 그중지를 잘직혀지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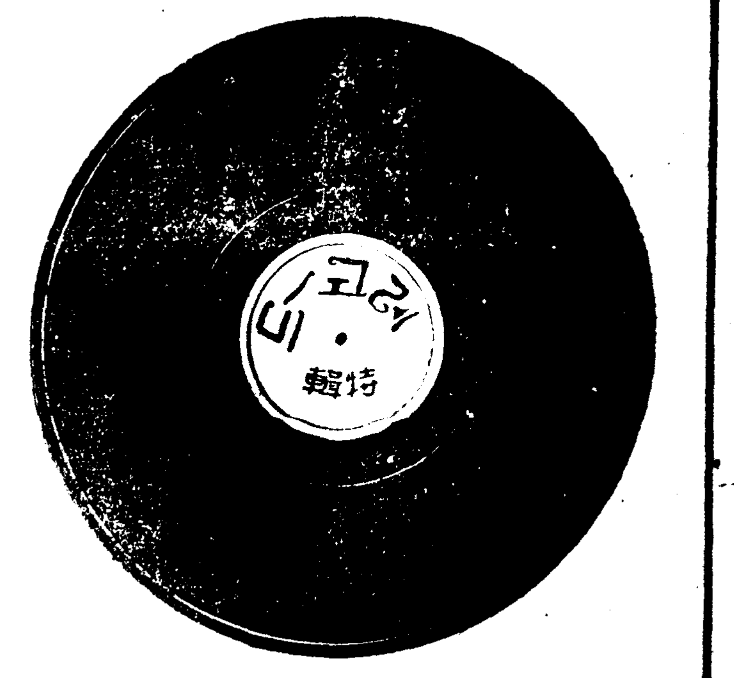
그리고 서경은 산명수려한곳이어니 아직 별일이업는동안 하야 그피곤한것을 잘쉬게 하여라.』

고 김부원수로 하야곰 다시 서북면병마사(西北面兵馬使)를 겸하섯다.

부원수는 머리를 조아 사례하고 즉시 서경을 향하야 떠나게되엿다.

그런데 때마침 서경절도사(西京使)로 부터 고(蒙古)원수(元帥)진함(眞)이 대군을 거느리고 압록강까지 이르러 조정에 국서를 바치라는 일이 잇다하고 면회를 하얏사오니 어찌 조치를 하올는지.

장계가 밝을 도와서 도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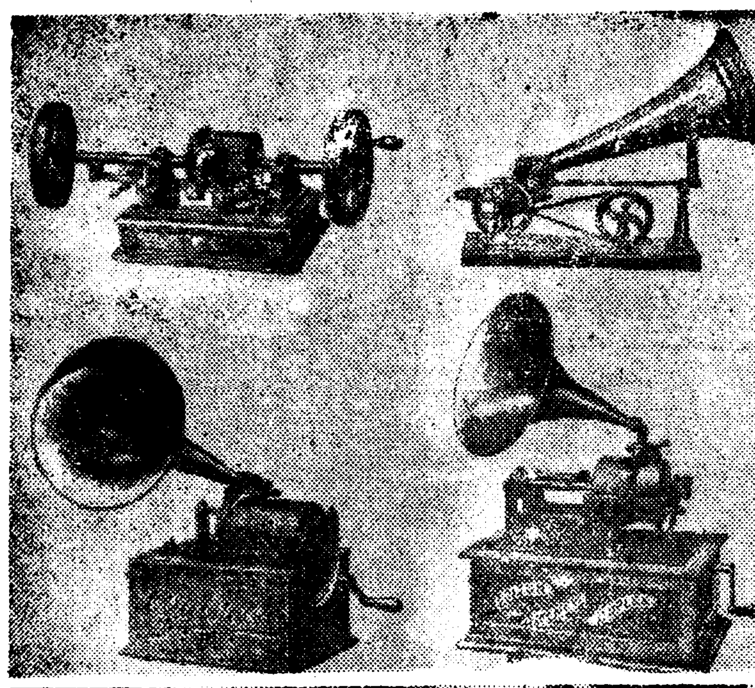
# 갓여순을맛는 유성긔의력사

## 박명왕에듸슨의산물

조선도 그만치 개화가 되엿다고 할까 도회지에는 거의 집집마다, 시골로 가더라도 거의 동리마다 유성긔ㅅ소리가 아니 들리는 곳은 업습니다 십여년전만 하야도 별별 이치ㅅ속이 다만타고 시골노인네들로 하야금 감탄을 마지 안케 하든 것인데 지금쯤은 그러한 감탄을 하게 되는 촌띄기도 업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그러타고 해서 여러분이 유성긔를 속속드리 잘 아신 것이라고야 할 수 잇습니다. 거의 일상생활에 필수품처럼 되야 잇는 유성긔인 만큼 어떠케 되는것이요 또 어떠케 발전하야 온 것이라는 것도 좀 알아 두시는 것이 어떠합니까?

륙십이년전 즉 서력으로 一八七五년 그라함·벨이라는분이 때깍때깍하는 시계ㅅ소리를 전선ㅅ줄로 보내기에 성공하고 그이듬해 다시 사람의목소리가 쇠사슬을 통하야 전하는데 성공하얏습니다. 그것이 아마 유성긔를 발명하는 첫거름이라고도 볼것이나 그는 그정도에 끄치고 더 나아가지를 못 하얏더랍니다. 토-마스, 알바, 에듸손이란 분은 거긔서 생각이 나가지고 어떠케 사람의 목소리를 고대로 옮기어 볼수업슬까 연구를 시작하얏습니다 그래서 팔십년전 즉 서력으로 一八七七년에 그는 유성긔의 설계서를 완성하야가지고 서서출생인 긔계직공조지, 크루세이에게 최초의 유성긔를 한틀 맨들어달라고주문하게 되얏습니다. 그러니까 유성긔는 금년이갓예순의 긔념될만한 해를맛습니다. 그의 생일은 팔월열하로입니다. 물론 그당시의 유성긔는 갓난이의 시대입니다. 어른이다 된 지금ㅅ것과는 비교도 안됩니다. 처음에는 나팔꼭지미헤 얇은 진동막(振動膜)을펴고 그것과 수직(垂直)으로움직이도록 바늘을 부친뒤 납이나 주석으로 맨든 동근통에다가 바늘ㅅ자죽을 나게하든것입니다. 한번 나팔을대고 말을 하면서 동근통을 돌리면 소리에딸아 바늘ㅅ자죽이 나게되는데 그뒤 그자죽을그대로 돌리면 그 소리가 도로 나는것입니다.

그러다가 십년이나 뒤에와서 바리나라는 분이 동근통대신 원형의 평반(平盤)을 생각해 내엇습니다. 오늘날의 유성긔는 대개 그것을 좀더 완전하도록 고치어 노흔 것이라고 볼수 잇습니다. 그러나 나팔꼭지에다가 대고 서 소리를 너허서는 아모래도 완전한것이 못 됩니다. 위선 방울ㅅ소리만큼 요란스러워도 재대로 나지를 안습니다. 그런데다가 세계대전이후 라디오가 생기지를 안하얏습니까? 라디오가 유성긔보담 더잘 나는 까닭에 유성긔장사가 고만 타격을 밧게되지 안습니까? 겨긔 자극되어서 유성긔의 개량을연구하는 열이 버쩍 심하야젓습니다. 그 결과 전긔로 넛는방법이 발견되야 아조 어떠한소리든지 고대로 옮거게 되얏습니다.



上은 에듸손의 發見한 유성긔

下는 레코-드 工場

# 유성긔의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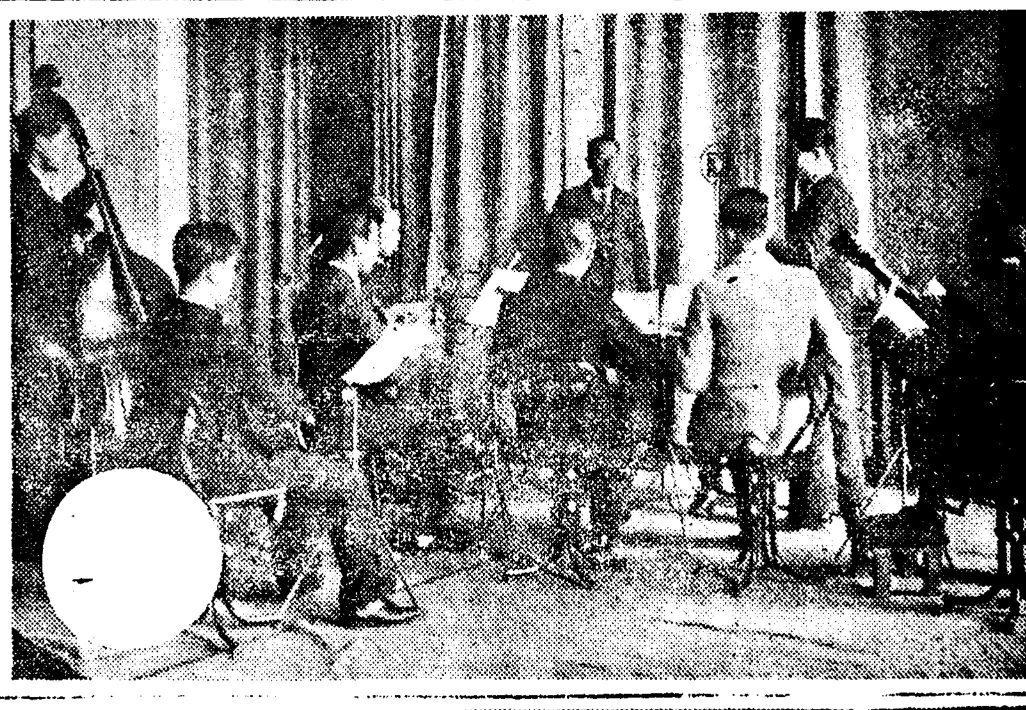
## 안와네의필요한상식

유성긔를 돌리는 힘은 전혀 강철로 맨든 태엽의 탄력으로 인하야 생기는 것인데 다시 그속도를 조절하기 위하야 보통으로는 조절긔가 부러잇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속도가 일정해야 하는데 그 적당한 속도는 대개 그제작회사를 딸아 지정되야 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라면 일분간 칠십오회이상 팔십회이하가 제일 적당하다고 말할수잇습니다. 그 이상으로 빨러도 자미업거니와 그이하로 더듸어도 조치안습니다. 그런데 태엽은 항상 바짝 틀지말고좀 여유가잇시 감아야합니다. 그려고 급히 휘돌려감는것은피하는것이조코 다른뒤에는 멧번 그대로 돌리어줌는치어두도록 하는것이 해롭지안습니다. 만일 잡음이몹시 난다면 그것은 기름이마른까닭입니다 한달에 한번쯤 기름을 너허두지 안흐면 안 됩니다. 또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태엽이 잘못되지도 모릅니다 즉 한번 풀어가지고 다시도로 감지 안흐면 안됩니다.

유성긔중에서 제일 귀중한 부분은 발음함(發音函)이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뜨더가지고보는것은 물론 나뿌거니와 그외에도 팍팍 드려바터상하게 말것도 까닭업시 열어 젯드리어 몬지가 끼게 말것이옵주의하여야 합니다.

그다음 바늘은 대ㅅ가지로 맨든 것도 잇고 보통 강철로 맨든 것도 잇고 또 쇠와 중석을 합하야 맨든 것도 잇습니다. 넘어 부드러운것은 소리가 약하나 넘어 강한것은 또 판을 쉬 상하게 되야 이상적 바늘은 별로 업습니다. 하여튼 판으로 보아서는 대가지가 제일조습니다. 강철은 매회마다 꼭 갈아 끼워야만 하고 쇠와 중석으로 맨든것은 오래 쓴다고 하지만은 그역시 이십오회 내지 삼십오회이상 더 써서는 쓰지 못합니다.

또 그다음으로 레코드는 쓰기전과 쓴후에 우단헌겁으로 씻어서 몬지가 끼지 안토록 해야 합니다. 우단헌겁대신 새깃가튼것으로 떨어도 무방합니다. 그런데온도가 자조 변하는 곳에다가 레코드를 두거나 습긔가 만흔곳에다가 레코드를 두어서는 수이깨지고 아조 버리게 됩니다 그와동시에 무엇으로눌러 놋는다든지 또 무로세워 놋는다든지 하야도 고만 사개가 틀리게 됩니다.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二三番 桃花劇場
六月二十八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은晝夜二回公開!
米國映畫 大活劇 流線怪盜列車 連續篇
時代劇 次郎長身代り旗

映畫殿堂 全鮮第一 團成社
◆日活超特作映畫 綠の地平線 (前篇)
◆廿世紀폭스超特作映畫 나는우리재롱꺼리 (Gingers)
天才少女셴·원서 朝鮮에대뷔!!
메추포리탄 (MetroPolitan)
廿八日特別封切 每日三回 午前十時四〇分 午後一時半 六時半 (但二回興行中에限하야 無說明映寫)

永樂町 電二〇三番 中央館
三十日特別短期公開(三日間) 納涼慰安短期名畫競映均一大衆料金サービス週間!!
大人 學生 二十錢均一 小人 十錢均一
◇晝夜三回上映表◇
新興キネマ提供 入江プロ超弩級豪華版 原作 泉鏡花 脚色 東坊城恭長 撮影 三木茂 監督 溝口健二 入江たか子、岡田時彦主演 瀧の白糸
新興キネマ提供 阪妻プロ超弩級時代劇豪華版 原作 峰 銀平 監督 東 隆史 浪人祭 坂東妻三郎大熱演
淸水一角

待望의朝鮮名畫特別大封切 當六月三十日부터特別大興行
嶺南映畫社超特作 京都PCC提供 監督…李圭煥氏 製作指揮李東氏
무지개 撮影…藤井清 主演…文藝峰孃
水仙一萬
國際뉴-스
優美館

# 道內二百餘工場에 職工一萬名突破

## 其中未成年인幼年職工千四百

## 保護立法이急先務

### 機械와싸우는이들

【平壤】 평안남도 보안과에서 는통계부 중에 에의하여 작년 말현재도내의직공십명이상을사용하는 공장과 직공수 취업시간(就業時間)재해 질병등의상황을세밀히조사했는데 조사는 제일호에서부터 제사호까지의사개조목이다

제일호조목은 위험이 업다고 인정되는공장 제이호는 위험또는 유해하다고보는공장 제삼호는 일본내지의공장법시행 제일조에 해당한공장 제사호는 공장법 시행규측 제이십칠조에 해당한공장이다

공장의 총수는이백륙개처 직공은 남자륙천륙백팔십륙명 녀자삼천사백륙십오명 합계 일만백오십일명인데 이가운데에서 가장주목되는점은 십오세 미만의 가련한 소위소공직공이 남자팔백십이명 녀자오백이십팔명 합계 일천사백사십명이 포함되어 잇는것이다

공장의 종류별로보다면 ▲염직 염직공장三二 ▲요업一九 ▲製穀製粉八 ▲고무工場一六 ▲釀造一三 ▲機械製造一二 ▲印刷製本一〇 ▲自轉車輪製造二 ▲製綿一 동으로 상세한내용을 조사해보면다음과갓다

◇第一號工場經營者

▲朝鮮人一〇六 ▲日本內地人六二 ▲外國人三

▲職工數 朝鮮人男子五、二五七 女子三、二九二 ▲日本內地人男子七四一 女子五 ▲外國人男子一八一 女子二七

▲計 男子六、一七九名 女子三、三二九名

▲勞動時間 八時間以下는 製粉工場一個處가잇슬뿐 ▲九時間以下七 ▲十時間以下四二 ▲十一時間以下四九 ▲十二時間以下三九 ▲十二時間以上三四

▲時間外勤務三三

◇第二號工場經營者

▲朝鮮人一一 ▲日本內地人九 ▲合計 二〇

▲職工數 朝鮮人 男子三六二 女子九二 ▲日本內地人男子三一 ▲以上計 男子三九三名 女子九二名

▲勞動時間 十時間以下四 ▲十一時間以上四 ▲十二時間以下一〇 ▲十二時間以上三 ▲時間外勤務五

◇第三號工場經營者

▲朝鮮人二 ▲日本內地人二 ▲外國人四 ▲計八

▲職工數 朝鮮人二六 ▲日本內地人三二 ▲外國人六六 ▲計一一四

▲勞動時間 八時間以下一 ▲十時間以下一 ▲十一時間以上六 ▲時間外勤務四

◇第四號工場經營者

▲朝鮮人五

▲職工數 朝鮮人四四

▲勞動時間 十一時間以上一 ▲十二時間以上四

# 法的保護업서서 疫病災害도極多

## 昨年中死者二、負傷二百餘

공장의상항은 대려전항과갓거니와 공장의재해(災害)와직공의질병의상항은 엇더한가?를 조사한바에의하면 소화십년 일개년동안에 사자두명 부상자이백삼십오명으로 사상의원인은 긔계운전과실로 사망두명 부상자이십이명 긔관이나 각구의파렬로 부상자세명 유독깨스(이화질물(引火質物)극독물(劇毒物)에인한 부상자오명 공장이나 건축물도괴로인한것두명 일용품취수업스나 공장의불비로 부상한것이백삼명이다

또직공의질병은 전염병(傳染病)다섯명 작업중발병여덜 기 오백십구명 합계륙백이십이명이다 그런데이상의 조사항목은최근의조사로 가장완전한것이며장차 실시되려는 조선공장법안에대한 귀중한재료가 될것은물론이려니와 격무로인하여 신체가허약하게되여 금기야 생명까지 단축식히고잇고 공장의설비불완전으로 생명의 위협을바드면서 싼임금으로나마 일하지안흘수업는 눈물로세월을 보내는직공들의 구제책도 수립이될모양이나 가장한심한 현상이랄가기막히는현상이랄가 일만백오십일명에서 기어잇는 일천사백사십명의 미성년(未成年)직공의 장래는 다시금우려하지 안흘수업는 문제이라한다

# 無德義한地主 移秧中에移作

## 問題漸次惡化

【安義】 경북 의성군 안계일대에는 금춘이래 각지에 소작쟁의가 격증하여 당국으로서는 조정에 진력하여오든중 더욱 요사이 이앙긔임에도 불구하고 군위(軍威)에 거주하는 지주 리진수(李鎭洙)는 의성군 비안면 산제동에잇는 박주로(朴周魯)의 소작권을 동리 홍진수(洪鎭洙)에게 이작시켜 장박이 모다 강경한 태도로 문제가 점차 악화중인데 당국으로서는 극력 조정중이나 아즉것 원만한 해결을 보지못하여 전긔 지주에 대한 일반의 비난성은 자못 놉다고한다。

# 境界線모르라 投葬햇다被訴

【元山】 공동묘지인줄알고 투장하얏다가 고발당한이야기──며칠전 원산서 사법계에는 남의산에 묘를쓴자가 잇스니 그들을추체해달나는 고발이들어와잇다 이제 그사실을 알아보면 원산부영정 오십이번지(元山府榮町一五二) 리창선(李昌先)은 지난음사월하순 자긔선산인 덕원군현면방하산리(德源郡縣面防下山里) 십삼번지림야에 분묘수선차로 와보니 어떤이를 몰울투덤이 삼십여긔가 잇서서 그묘주를 조사하야 묘지취체규측에의하야 원산부룡동(龍洞)십사번지 김광하(金光河)등십오명에게 그묘의 이전을 하도록해달라고 고발한것이라는데 이에 자작이 흉흉난 전긔묘주들은너머도 의외의 사실에 아연하고 어쩔줄을모르고 잇다고한다

# 全朝鮮─男女 自轉車競技大會

## 南北에서七十餘選手參加

## 海西初有盛事를일워

【安岳】 귀보─일개월동안 준비하야오든 전조선남녀자전거경기대회는 당일의 우천으로인하야 예정일보다 하로를 연긔하야 지난이십 이 삼일간 안악공설운동장에서 유여자천육회주최와본보안악지국을 비롯하야 안악체육협회후원으로써 맑게개인 하늘아래 남으로멀리목포 조치원(木浦、鳥致院)을 비롯하야 인천 경성 개성(仁川、京城、開城)에서 근삼십여명의 용사가 출전하얏고 북으로는 신의주 정주 순천(新義州、定州、順天)을 비롯하야 평양 진남포(平壤、鎭南浦)에서 삼십여명과 해주 황주 흥수원 장연 사리원 재령 신천(海州、黃州、興水院、長淵、沙里院、載寧、信川) 등지에서 운집하야 류 이류 삼류의 선발하얏는데 특별히 인끼를 끌게된것은 진남포 최래실(崔來實)양 평양 정인애(鄭仁愛)양 사리원 김옥화(金玉花)양 신천 김영자(金英子)양과 타지방에서 삼인과 안악녀자로서 처번 출전하게된 유애순、김순애、원태복、리순단、김복매(劉福順、金英子、元享愛、李順實、金福女) 합하야 십이명의 출전이잇서 운동사상에 처음기록을 돌파케되엇다고한다 선수들의 치착한 태도와 스포츠정신그대로 조선선수의 훌륭한 수이잇서서 주최단체는 흥분、첫번 성사를 이룬 안악사회에 일대자극을 주엇다 오후네시부터 결승에 이른바 우승자는 다음과 갓다한다

◇三千메─돌코─쓰

一流一着 沙里院 朴成烈 一流二着 平壤金雲鶴 一流三着順川 金容七

◇二千메─돌코─쓰

二流一着 新義州鄭永傑 二流二着 平壤劉實淳 二流三着平壤 白一男

◇一千四百메─돌코─쓰

三流一着 平壤李得鉉 三流二着 海州朴元一 三流三着 平壤 崔萬永

◇六百메─돌코─쓰

女流一着 鎭南浦崔來實 二着 沙里院 金玉花 三着 平壤鄭仁愛

## 三湖商務會定總

【三湖】 함남삼호(咸南三湖)의유일한 상민의긔관인 삼호상무회(三湖商務會)에서는 지난이십구일에 제오회정긔총회를 개최하고 다음과가티 임원개선과 결의사항이 잇슨후 산회하엿다고한다

◇決議事項

一、全鮮商工聯合大會開催의件

一、公會堂建築에關한件

一、公休日制定의件

◇新任員─會長 朴禮根 總務 盧貞鎬 會計及書記 金興徹 評議員 朴寶鉉外四人 幹事 徐進行外五人 監査 金弘鎭外二人

# 발바리때렷다고 軍用犬시켜咬傷

## 짐붙일때스사로짓는거誤認코

## 元山杉山(女)某의暴行

【元山】 저긔집 강아지를 따렷다고 군용견(軍用犬)을식혀 물게한 인도상용서치못할 횡포무법한사실이 원산에서 발생하엿다 지난 이십구일 오전아홉시반쯤 원산부천정일정목구번지(元山府泉町一丁目九) 삼산미자(杉山美子)(假名)는 조선운송우쉬회사원산지점 전속인부인 함성조(咸星組) 김봉률(金鳳律)(假)외십여명이 원산우편국전선(電線)을 전긔삼산의집아페잇는 우편국창고에 너흘라고 수하차다섯대에 논아실고와서 입고(入庫)할때 자긔집에서 길으는 발바리가 나와서 짓고잇섯는데 이것은 전긔인부들이 발바리를따린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용견을 다리고나와서 그곳에잇는 김봉률을 물게하야 전치이주일을요할 부상을식혓다 부상을 당한 김봉률은 곳 그부근에잇는 증전병원(增田病院)에서 응급가료한후 방금자택에서 치료중이라고한다

**目擊者談** 별항보도와 가티 자긔집 발바리란는 적은 개를 때려서 짓는다고 군용견을 식혀서 물게하야 이주일치료의 부상을식힌사건은 일반여론의 초점이 되여잇는데 이제이사건발생당시 가리가서 일하든 함성조원한모(韓某)는 다음과 가티말한다

우리들은 오날 전선을실고 우편국창고에 너흐랴고 수하차 다섯대에다 실고갓습니다 그리하야 그집(삼산)아페나려놋코 입고를 식히노라고좀 야단을첫는데 이바람에 그집 개가작고 지젓습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따려서 짓는다고 그 잡부인이 군용견을 끌고나와서 웨 개를 때렷는가하며 쥐고잇든 개바(犬綱)를 늣처노흐며 물어라 물어라고 하얏습니다 그래서 김봉률씨가그곳에잇다가 왼쪽다리를 물리웟습니다 우리는 너머도 억울하야 사람을죽여도 조흐냐고 하얏드니 그녀자는 너이가튼사람은 천벌로 그러케한것이라고하며 집으로 들어가버렷습니다 운운

**杉山美子談** 문제의인 삼산미자는 다음과 가티 말한다 내가 군용견을 식혀서 물게 한것은 안입니다 이날우리집 적은개가 작꾸짓기에 내여다보니 그사람들이 때립니다 그래서 좀 위협(威脅)하노라고 군용견을 다리고 나가서 그 사람들과 섯낸말을 하얏더니 그가리 물엇습니다 군용견이라면 영민하야 주인의명령에 절대복종하므로 그런일이 업겟다구요? 그러치도안해요 내가성을 내고잇스닛가 아마물언는가봐요 운운

# 稀有의低溫繼續 鰮漁業에大打擊

## 比前年同期四度以上의低溫

## 新昌近海當業者恐慌

【新昌】 종래에양호수의 온어산지이든 신창(新昌) 연안일대의수온은 금년에들어서는 례년보다 저온이 계속되여 례년동긔보다 사오도낫다 작년도가트면 오륙십해리(浬)에서 정치까지어업가만히 잡히어 신창항에도 대단히 풍성하엿는데 금년에 들어서는 온어긔인 유월에도 잘잡피지안허 작년에 만흔리익을본 어업자들은 잇는힘을다하야 어선을만들며 자망부속(刺網部屬)설비등 만흔투자를 하엿는데 수온의상태가지금가타서는 아프로도 도저히풍어를 긔할수업다하야일반어민들은 극히 우려중에잇다 한다

## 本社長淵支局主催 龍興窟探勝盛況

【長淵】 본보장연지국주최인 지하금강 룡흥굴(龍興窟)탐승은 예정과가티 지난이십이일에 남녀탐승단삼십명이 탐승도중에 올라 평양인소가루와동흥을 탐승하고 지난이십오일에 무사히도라왓다고한다

◇사진…同探勝團一行 (長淵支局提供)

# 悲觀끄테自殺

## 죽은子息을생각

【鎭南浦】 남은다즐겨워하는 단오명절에 죽어진자식생각이 북바치어 자살로서 우리를놀레버린사람이잇다 그는함남영흥군 진평면영하리(鎭坪面永河里)에 거주하는 조영팔(趙永八)이란 사람인데 음오단새날에 단오노리터로 나가되며 작년도에 세상을떠난자식의 생각이불길가려워지어 자살하엿다한다

# 獵奇的!名義盜用

## 卅年間儼然死兒의「탈」을쓰고

## 가진挾雜다하다가畢竟綻露

## 豫審終結、公判에廻附

【木浦】 목포부회의원 염천각태랑사염천효조(染川覺太郞事染川孝助)는 자긔가 전과자인것을 감쪽가티 감추고 자긔의 죽은형 각태랑의 이름을 가지고 목포에와서 부회의원에 까지당선되야 소화륙년도부터 사과휘령을 전문으로하다가 작년십이월십일일에 사문서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긔 횡령 공정증서 원본불실긔재행사、조선지방선거취체규측위반(私文書、有價證券僞造行使、詐欺、橫領、公正證書原本不實記載行使、朝鮮地方選擧取締規則違反) 등사건으로 목포검사국에 강제수용을 당하야 이래칠개월동안 천야(天野)예심판사의 손에 심리를밧다가 지난이십팔일에 예심이 종결되야 유죄로 목포재판소에서 공판에 회부되엇는데 편취、소비、횡령된금액이 팔천륙백칠십원에 달한다는바 피해자는 대개 은행회사라는바 일반은 그러케삼십년동안이나 죽은자긔형의 이름으로 교묘하게 행사한것을 이야기삼아 여론이자자하다고한다

## 牙山地方雨量 移秧에洽足

【牙山】 충남아산지방에는 우량부족으로 이앙된것시 삼할에불과하야 일반농촌에는 대불안이던바 지난이십일오후 십일시부터 강우가 나리기시작하여 익일인 이십팔일까지 계속함으로 일반 농가에서는 희색이 만면하여 이앙하기에 분망중이라한다

# 咸興府內에火災 二棟三戶全半燒

## 損害額은方今調查中

【咸興】 갈게 계속되는 가물은 농사뿐만아니라 결국 도회지에도 때아닌 화재(火災)를 나혓스니 지난이십팔일 오후열시이십오분쯤 부내본정삼정목 이십륙번지(本町三丁目二六) 한고학(韓高學)의 집에서 불이이러나 마른집 집웅에옮겨부터 불길은 덕웃사나와저서 린접하고잇는주택상동삼호을 전반소하고 이십구일오전령시경에 껏다 손해는 조사중이며 원인은 재버리는데서 일어낫다고한다

| 平 | 壤 |
|---|---|

# 全朝鮮씨름大會

▲時 日 七月三、四兩日밤

▲場 所 崇專體育館內

◇主 催 關西體育會

◇後 援 朝鮮日報平壤支局

# 愛慾의彼岸 【38】

李光洙 作 金康穆 畵

한 배스가죽에 실도 빼어노치못하면서도 남편과 침모가 단둘이 집에 잇슬 긔회가 업시하노라고 잇는애를 다 썻다。

오래 가물다가 비 만히 오는 어느날 밤이 열시나 지나서 김부인은 혼곤하게자다가 깨어서(김부인은 이삼일래로 신열이 나기 시작하엿다) 병실을 돌아보다가 남편도 업고 침모도 업는것을보고、혜련더러、

『악아。아부지 아니오섯니?』

하고 물엇다。

『다녀가섯서요、어머니 주무실 때에』

하는 혜련의 대답에、부인은깜작 놀라는드시、

『악아 어서 집에 전화 걸어서 아버지나 침모나 하나 오라고 하렴으나』

하엿다。

『열시가 넘엇는데。그리구 비가 오는데』하고 혜련은 나츨 찡그렷다。

『이애가 글세。메칠 못살어 미속을 웨 이러케 상하게 하느냐』

하고 부인은 팔을 내어두르면서 화를내엇다。

『글세 지금 무어라구 오라구 허우?이 비오는 밤수중에』

하고 혜련은 어머니의 질투가 추하게 보엿다。

『혜련아。네가 웨 내 속을몰라주느냐。아부지가 도모지 밋지못할 어른이다。거든분 번주 그려허시지、속은 딴판이어든。이 어미가 일생에 어떠케 속을 썩힌줄 알어? 그러니? 어서 전화 걸어라。아부지가 주무시거든 침모더러 어서 인력거라두 잡아타구오라구。내가 급히 할 말이 잇다구 그래라』

혜련은 할수업시 전화를 걸러 나갓다。

한참이나 잇다가 전화에 나온것은 아버지엇다。

『제야요。혜련입니다。』

『오、웨 그러니? 어머니가무슨 일이 잇느냐』

하는것은 김장로의 졸리는 소리엇다。

『아부지、어머니가 침모를 좀 곳 보내시라고 그리서요。급히 좀 헐 말이 잇다구요』

하는 혜련의 낫체는 쥐가 일 것 갓탓다。

『침모는 왜?』

하고 김장로는 입맛을 다시더니、

『오 곳 보낸다구 그래라』

하고 김장로는 더 말을 들으려고도 아니하고 전화를 탁 끈허버렷다。

김장로는 『흥』하고 코우슴을 웃고、안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안 마당을 향하야、

『이바、침모。이바 침모』

하고 불렀다。드난이나 안스잡이가 이상하게 알까보아서 김장로는 더욱 커다란소리로、

『이바 침모。어서 병원에 좀 가보게』

하고 왼 집안에 다 들리도록 소리를 질렀다。

『내에』

하는 침모의 대답을 듯고는 김장로는 문을 닷고 돌아와서 자리에 두러누엇다。할석 차양을 두들기는 비스소리가 요란하고 느즌 전차의 괘도를 갈고 돌아가는 소리가 무슨 울음소리 가티 들려와다。

반자우에서 쥐들이 덜그럭거렷다。

『딴은 침모가 양전키는 해』하고 김장로는 입맛을 다셧다。안해가 하도 강시자를 하니 정말 침모를 건드려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러나 김부인이 얼마쯤 정신이 불평하게 되고 몸이 편안하게되면서부터는 침모를 김장로와 함께 집에 두는것이 위태하여서 밤에 침모를 부르고 그 대신에 혜련과 문임이가 하로 걸러 밤을새이기로 작정하엿다。그러다가 만일 뭇슨 일로 침모가 못 오는 날에는 열번이고 스므번이고 집에다가 전화를 걸라고 하여서 김장로를 불러다 노코야 마음노코 잣다。

김장로도 안해의 뜻을 짐작하기 때문에 심히 불쾌하여지마는 목숨이 메칠 아니 남은 안해라 하야 순순히 안해의말대로 하여주엇다。

이모양으로 김부인은 하로에 우유와 미음을 모도 두어종지 밧게 못 마시면서도、아직 수술

衛生大掃除

今津佛國理學博士發明

今年도 イマヅ를!

蠅取粉 イマヅ

液體殺虫劑는問題가안된다

イマヅ는斷然優勢!

▼効力이强하고、오래가는點으로イマヅ는液體殺菌劑와는判異하다。

▼液體와는따서、먹더라도毒이안된다。家畜과家禽에도安心하고쓸수잇다

▼液體는引火되야、불달닐염려가잇지만、イマヅ는어떠한場所에쓰더라도絶對安全。

▼イマヅ의容器는그대로撒粉器로使用、液體와가티特別한撒布器는買入할必要업서서가장經濟的。

빈대용(赤罐) 파리약따로잇다

M. 110. D

(全國藥店에잇슴)

大阪市·大仁本町 合資會社 今津化學硏究所

# 中風 高血壓 腦病

原因을硏明、根本療法

「血液의大掃除」療法

뇌일혈·중풍의원인은오독당배·림질매독·신장염으로변비·편식·코스병·란산등으로피가탁하여나쁘기때문에생긴다。피가혼탁되면동맥경화·고혈압에걸여四十세쯤되야·우에그림과가튼증상이나타나며최후에뇌일혈·중풍으로세상을떠나게된다。이것을일시적뇌병약이나혈압강하제만으로서는수이근치되지안코、혼탁되피를정화하면반드시낫는다이상과가튼결론으로부터、소위『혈액의대소제』로법이발명되엇다。이것은파리약의今津佛理學博士가오랜동안고심연구한결과、성공한것이어서、이것을쓴기에간단한내복약에응용한것이지금대호평의『리기신』「이마즈」이다

본제는병스근원이되는혼탁한피를정하며독소를소제한다。즉혈액의대소제는、동맥경화가나흐며、혈압이나리고、따라서두중·현기증·귀울고·어깨세우고·요통·천식동기·성욕감퇴·손발저림증이낫고、뇌일혈과중풍을완전히예방된다。

또한중풍으로약효가업다고고통밧는분、으로혈액의대소제를하면、혀구부종、반신불수가나으며중풍이라도반드시낫는다。곳본제를복용하고전쾌하라(전국약점에서팝니다)

大阪市大仁、蠅取粉本舖、今津化學硏究所에다朝鮮日報讀者라고엽서에서보내면설명서무대진정。

## 經濟解說 米國經濟立法 ●今年議會通過內容

◆煙草統制法=農業調整法의 違憲判決에 따라서 一九三四年六月 制定의 煙草統制法이 今年二月에 廢止케되엿스므로 이新事態에 應키爲하야 北카로라이나州選出下院議員돕·카氏等으로 提出된것이며 四月八日下院通過, 그後上院에 附託되엿다가 四月廿一日 上院通過, 그後修正個所에 對하야下院은 廿二日 이것을承認, 四月廿五日에 大統領의署名을 끝내엿다. 法律의 骨子는 煙草生産者에 對하야 煙草生産에 關한 州間의 協定을 締結하는 權限을 賦與하고 煙草生産 又는 賣買 統制에 關한 州內의 煙草生産 統制를 維持하는 權限을 賦與한것이다.

【附記】農村勸業保險法案=農務省의 提出한 『로레-자-·펭커』法案 以上의外 農村保險會社設立案等의 提出과 農作物保險會社設立案等의 內容으로한 포-포法案等의 提出을 보앗는데 이것은 모다 成立치못하고말엇다.

×

◆商品取引所法=本法은大統領의 敎書에 基하야 昨年의 議會에 提出되고 下院에서는 昨年六月三日에 可決되엿스나 上院의 審議가 遲延되야 今年議會에 再開하는 同時에 上院의 審議가 進行되야 五月廿九日 上院을 通過, 六月三日에 下院의 再承認을 거처서 大統領의 署名을 得하야 六月十五日에 成立하엿는데 그法律의 骨子는 다음과 갓다.

(一) 一九二二年의 穀物取引法을 修正

(二) 玉蜀黍、小麥、燕麥、大麥、亞麻仁、乾酪、卵、棉花、米等의 聯邦政府의 取締下에 置함

(三) 右取引에 하기爲하야 商品定期取引委員會를 設置하야 右委員會에對하야 廣汎한 權限을 賦與함

×

本法에 依하야 商品取引에 關한 投機的操作을 禁止乃至 排除하고 이로써 市場操作으로 생기는 價格의 不當한 變動을 防止하는 手段을 講究케한것이다. 그러고 本案의 審議經過에잇서서 上院農業委員會에서는 스미스氏는 棉花取引에 關한 特別의 取引制限條項을 追加하엿다.

◆商品取引所法=이것은 政府에서 商品取引所의 性質에 對하야 在來의 商業取引을 改善하야 商品取引所를 法律로 制定한바 商品取引所의 業務의 範圍를 擴大하고 ... 等을 規定한것이다.

×

◆商船補助法案=이것은 昨年三月四日의 大統領敎書에 基하야 本案을 三百萬弗에서 一億弗로 增加하는 것으로 三月二十五日에 上院을 通過, 三月三十一日에는 下院을 通過하엿다. 그러나 兩院의 協議가 不調되고 그後 六月二十日에 上院의 修正案에 同意하야 成立되엿다.

×

◆砂糖統制法=이것은 昨年 議會에 提出되엿스나 그後 ... 六月二十九日 이것을 可決하엿다.

【附記】不動産抵當法案=... 五月十二日에 ... 右法案은 ... 그러나 本會議에서 否決되엿다. (終)

## 自由市場廢止의 期待背馳

## 京畿道繭出廻 顯著不振狀態

### 共販擴大强化의 方針이나 製糸側快哉도 一時!

朝鮮製絲協會에서는 京城과 大邱 두곳의 自由繭市場存續으로 因하야 共販出廻가 不振한다하야 이것의廢止를 熱望해오던바 京畿道의 共販擴大强化方針에 依하야 今月十一日 京城의 自由繭市場을 廢止한을 떨어 製絲協會側은 內心으로 快哉를 부르지젓섯스나 自由市場을 廢止한지 廿日을 지난 지금까지의 經過에 依하면 所期에 反하야 京畿道內의 繭出廻가 도리여 不振狀態에 빠젓다고 한다

### "仲買商人이 使嗾"

▲……製絲家側의 所見

京畿道內春繭共販出廻不振에 對하야 關係製絲에서는 그原因에 對하야 聯合調査를 行한바 結局京城의 自由繭市場이 閉鎖된結果 繭仲買商人이 地方養蠶家를 使嗾하야 繭價의高價豫想을 宣傳하고 各商人이 此等養蠶家에게 少額의 前金을 貸付하야 自家及乾繭場에서 乾繭封鎖를 行하는때문으로 이傾向은 今後去益增加될 形勢임으로 製絲業者는 이對策을 講究하는中이며 仲買商側도 合理的으로 行하고잇는만큼 解決은困難할것이라한다

### 市場廢止結果는 生産者에게不利

#### 仲買人好機를提供

自由市場을 存續시키엇드면 生産者는 自由市場으로 가저와서 比較的公定한 값으로(共販價보다 高價로)팔수잇서 農家로서도 有益이오 商人도 時期를 놋치지안코 팔기爲하야 相當한값으로 사서 利益되면 即時 팔어오던것인데 自由市場이 閉鎖된結果 生産者로서는 共販에 가저가는 구찬음을 하기실여하는것을 機會삼은 仲買人의進出을 促케되어 若干의 金融으로 高價豫想을 宣傳하고 投機的行動을取코잇는바 이는生産者로서도 危險千萬한일로 萬一 絲價가先高價豫想과 가티 될것 가트면 조커니와 低落케되는때이면 從前가티 自由市場으로 가서 失機치안코 팔수잇던것을 仲買人에게 犧牲 當코 말 境遇도잇겟는바 自由市場閉鎖는 結局에잇서서 製絲側은 共販出廻不振으로 打擊이며 生産者側으로서는 處分失機의危險을 주게하고 仲買人의跋扈만 보게되엇다고할수잇다

## 勸業、農銀等 不動産擔保 二厘利下를發表

【東京電話同盟】大藏省에서는勸銀、農銀、北海道拓殖銀行의不動産擔保貸付金利를 二十九日부터 ... 引下를 發表하엿는데 ... 特히 農銀은 政府의低金利政策을 드러서 全種別로 勸銀과同率로 引下할을 斷行하고拓銀도 이에 順應키로되엇다

## 漁業用油 購入協議會

漁業用으로消費하는 石油類의共同購入은 殖産局에서 漁業協議를行하얏는데 繼續하야 七月六七兩日 總督府에서 漁業用油購入協議會를 開催키로되엇다 이會에는 漁業關係諸團體代表가出席하야

一、漁業用油類의 共同購入에關한件

一、漁業用油의購入에對하야 地方的으로 施設을要할것 其他

一、右配給施設에關한件

等을協議할터인데 全朝鮮漁業者의 需要燃油를 이에依하야 組織的共同購入을 實現할豫定이라한다

## 百貨店休日增

小賣商側提唱

京城商議에서는 二十九日 午後一時부터 第一會議室에서 小賣商店街 振興策을 協議하엿는데 出席者는 ... 大略 다음과가튼 것을 決定하엿다

一、購買組合의廢止 또는 取扱商品의制限

一、百貨店의 公休日增加

一、小賣商聯盟의設置

一、京城에繁華한商街設置

一、指導機關의擴充

## 朝銀地金買上

平均十三萬圓―十五萬圓

朝鮮銀行産金買上은 五月의改訂以後 每日平均 十三萬圓乃至十五萬圓에 達한바 五月以後의 買上高는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五月上旬二八、三 中旬一、一六九 下旬一、三二〇 ▲六月上旬一、六六九 中旬一、...

## 米運賃協定成立 新運賃五圓引上

◇……八月一日부터實施

宗主權問題로 曖昧에 부되치든 鮮米輸送協議會는 二十九日 午前中 朝鮮側荷主의 再協議에依하야 日本內地側의 主張에 讓步키로 決定하고 午後二時부터 日本內地側荷主와 會見하고 다시四時부터 船會社와 會見協商의 結果 다음과가티 三者의 協定이成立하엿다

一、運賃據은 압으로 一個年間 現狀대로 할일(元山、木浦는 前據、其他는着據)

二、運賃更改는 每年一回로하고 每年六月中에 協議決定하야八月一日부터實施할일

三、三者協定의 精神에 基하야 協議機關은 日本內地 朝鮮交互로할일

四、累進戾를 廢止하고 期末戾를 每百石五圓으로하야 出荷主折半으로할일

五、小型補助帆船은 從來대로五百噸以下를 容認할일

六、運賃은 基本運賃五圓引上의 六十五圓(阪仁間)으로하고 慣率七、契約船會社는 朝鮮郵船、東和、辰馬、中村、尼崎의 八社로하고 近郵의 二社는 東京側과 折衝하야 다시決定할일

九、記號은 船會社의 絶對責任으로하드래도 積載比率制度를 考慮할일

그리고 京濱、名古屋荷主에對하야는 右協定을 通告하야 承認을求키로되바 右協定은 지난二十一、二日의 名古屋協議會의決定을 全面的으로 認한것이므로 京濱、名古屋荷主도 異議가 업다고한다 三十日 午前十時부터 三者代表間에細目協定이되엿다고

### 新團體를結成

關係船會社側에서

朝鮮米 運賃協議會에서 積載船會社를 入社로 船會社間에 協定을 成立하고 ... 하기로되야 右八社로써 新團體를 結成키로 되엿다

### 깨스린價差撤廢

自動車協會側回答

日本內地、朝鮮間의 깨스린價格에 ... 가튼五錢의差가 잇엇는바 今番 ... 로 된다 가튼 五錢의 差는 其他 販賣店은 從來대로 三菱石油等 取扱키로되엿다고

그러나 石油의 輸入은 關稅로 ... 五圓의 差가 잇슴으로 全朝鮮自動車協會에서는 ... 會長吉田雄一氏로부터 殖産局에 陳情하엿는데 三十日附正式으로 回答이 왓다고 한다

## 西朝鮮京濱 七十五圓

名古屋七十二圓

西朝鮮阪神間의 運賃決定에伴하야 西朝鮮、京濱間運賃도 自然協議決定키로되바 東京商船幹事長은 來月初에 渡東하야 京濱及名古屋荷主와 各各協議決定키로되어 京濱西朝鮮運賃은 過般 名古屋의荷主會合에서 阪神과의 運賃差十圓, 名古屋은 七圓으로 決定하야 西朝鮮京濱間은七十五圓, 西朝鮮名古屋間은 七十二圓으로 決定될것이라고 한다

## 國防費負擔으로 特殊鑛物을開發

### 明年度具體化에努力

朝鮮全土에 亘하야 豊富히 埋藏되어잇는 各種의 鑛物資源開發에 對하야 總督府에서는 數年以來 非常한努力을하는中으로 그中 金은 昭和七年以來 探鑛奬勵補助金交付의 方途를 開하고銳意産金增加에 努力하는一方 國防上必要不可缺할 特殊鑛物에 對하야서는 近年俄然重要性이 增加하야 아루미, 水鉛, 마그네사이트等 軍需工業에 必要한 原料로서 考慮되는것은 金과同樣 探鑛乃至採掘에對한 補助金制度를 設定할 程度의것으로 이것은 即一面에잇서 國防費의 分擔을 實現하게되는것으로 可及的明年度에 具體化케할 意向이라한다 殖産局鑛山課에서는 産業의 例에倣하야 何等特別한 奬勵方法을 設하야 積極的으로 開發에當할 意向이라한다 그 具體的方法으로 行하는外에 格別히 어려다할 奬勵方法도 엄슴으로

## 小倉石油既得權 保守할方針으로

朝鮮石油의 開業을압두고 日本內地石油業者는 猛烈 朝鮮으로부터 撤退하는데 小倉石油는七月中旬 現役이 渡來하야 既得配定의確保와 自然增加의 比率配定을 要求하고 特約店擴張의 立場에서 어데까지 既得權을保障할방침을 取하리라한다 卽月間朝銀의持來는 三百萬圓을 超過할모양이라고

## 石油業者會議

朝鮮石油의 開業을 앞두고 ... 三三五

### 三菱重油輸入續行

三菱商事에서 石油類의輸入販賣에 伴하야 今年度來 石油輸入業者로서 朝鮮石油會社의 開業에 際하야 中止하고 特約店을 通하야 ... 朝鮮石油會社와 協定하야 다음과가티 決定하엿다

## 七月物綿絲布

原價低落이不良

七月物의 綿絲布原價低落은 ... 다음과가티 原棉高로 因하야 原價의 騰貴에 依하야 ... 需要家의 ... 大部分은 ... 綿絲布相場에 對하야 人絹의 ... 政策을 것잇다 (今月號)

## 重要商品界事情

| | | | | |
|---|---|---|---|---|
| 2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3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4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2—32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2—32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2—6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2—80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下旬對外貿易 入超二百九十萬圓

【東京電話同盟】大藏省發表에依하면 六月下旬對外貿易豫算調査는 다음과갓다 (以下單位千圓)

| | |
|---|---|
| 輸出 | 七九、七五一 |
| 輸入 | 八二、七一九 |
| 合計 | 一五二、四七〇 |
| 入超 | 二、九六八 |

## 經濟寸鐵

京城自由繭市場 閉鎖로 仲買商人이 地方에서 暗躍그때문에 京畿道內繭出廻不振

흠 이러쿵 저러쿵 하더니 되어 製絲家側 찰쾅

○

軍需工業用 鑛物開發에 努力하리라고

○

이번에는 總督府 『寶玉寺』 가 한목 볼판이냐

## 經濟界消息

○安東取引所總會【安東電話同盟】安東取引所에서는 二十九日 ...

## 東京東新高低表

| 年 | 月 | 高價 | 低價 |
|---|---|---|---|
| 一〇 | 六 | [illegible] | [illegible] |
| | 七 | [illegible] | [illegible] |
| | 八 | [illegible] | [illegible] |
| | 九 | [illegible] | [illegible] |
| | 一〇 | [illegible] | [illegible] |
| | 一一 | [illegible] | [illegible] |
| | 一二 | [illegible] | [illegible] |
| 一一 | 一 | [illegible] | [illegible] |
| | 二 | [illegible] | [illegible] |
| | 三 | [illegible] | [illegible] |
| | 四 | [illegible] | [illegible] |
| | 五 | [illegible] | [illegible] |

## 實物前場取引

▲人造肥料 ... ▲石川島 ... ▲東水電 ... ▲合同毛織 ... ▲日本邦人 ... (合計一四〇枚)

## 東京國債市況

【東京電話同盟】實買一巡 三分半、四分物은 ... 米貨는 押目 ... ▲甲五分利 ... ▲佛貨四分 ... ▲二回四分 ...

## 惡目買論不無

東新은 百三十圓臺에서 低迷 ... 反撥力이 鈍하고 不味商狀況이 ... 東新自體가 不良하다는것보다 ... 果然大利를 得할수잇슬가 ... 그것은 ... 限界에 ... 方針을 定함이 賢明하다는말이다

## 떠러진채低迷

昨後場에 도國策新株込說로 證券에서 買攝하엿다하야 百五十八圓臺 ... 東新은 百二十七、八圓臺 ... 今前場은 ... 

## 株式 下支모양 底堅

### 商況 (三十日)

日 午後三時부터 同所에서 第三十一回定期總會를 開하엿는데 ...

### 前場底堅

今前場은 東新百二十七圓九十錢... 

### 後場伸悩

下旬 買入 ... 二百九十六圓八千圓으로 ... 

## 今日財界 (三十日)

◆米 (單位錢)

| | | | |
|---|---|---|---|
| 仁川正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期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 東京期米 | [illegible] | [illegible] | [illegible] |

◆株

| | | |
|---|---|---|
| 朝新 | [illegible] | [illegible] |
| 東新 | [illegible] | [illegible] |
| 日産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綿絲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綿花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人絹 | [illegible] | [illegible] |
| 大阪砂糖 | [illegible] | [illegible] |
| ゴムFAQ | [illegible] | [illegible] |

## 市場大觀

◆……東新은 百二十七、八圓 ... 百三十圓臺에서 머무적 ... 

◆……八月限은 約百丁 ... 

## 軟派의雪辱戰

### 中限時代展開?

今前場으로써 納會를 告한新甫八月限은 三十一圓八十錢에 發會되어 一時六十三錢까지 下押하엿다가 三十二圓七十錢의 高價를 示한後 三十一圓七十五錢 까지의 反落으로 更히三十二圓五十五錢의 高價를 示하고此에서 更히七十錢台의 反落으로마처 天井圈을 形成하엿다 ...

## 大阪國債市場

## 市場月末休會一束

▲大阪綿絲、棉花、人絹、砂糖의 四市場은 昨後場에 休會하야 今日前後場共히 當限受渡로休會이다

▲東京人絹市場은 當限受渡로 休會이다

▲東京株式市場은 當限受渡로 休會이오 短期市場만 一時間立會이다

▲福井人絹市場은 前後場共히例休

▲新取米豆部와 其他各地期米市場은 當限受渡로보다 後場休會이다

▲大阪長期株式은 後場休會이다

## 期米 平穩裡에 納會

### 前場保合

昨後場 阪地三十一圓九十一錢에 寄한 當市場은 今朝에 入하야 ... 

## 海上精程度?

### 新甫發會豫想

明一日 發會될 新甫九月限은 ...

### 各地新甫豫想

仁川、下關、名古屋은 十丁乃至 ...

## 朝取期米取組內容

## 堂島前場保合

【大阪電話】全國的降雨로 水不足이 解消되어 ...

## 各地正米

### 京城少高

### 仁川少强

### 釜山保合

### 大邱續落

### 群山續强

### 木浦不變


土金 石金 福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京城府黃金町二丁目 電話本局四八五六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은代金引換販賣致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康益商店 米 仁川 京城 株 金益證券